Weekly 공감
더 큰 대한민국
No.53
2010.03.24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다
대담 보수·진보 대표지성 안병직-백낙청
봄꽃 개화 캘린더
교육개혁 첫걸음은 비리근절

어제는 주부맘
오늘은 워킹맘

여성이여!
다시 태어나라

당신의 잠재된 능력을 다시 발휘해보세요.
미루어 두었던 꿈을 다시 이루어보세요.
직장에서 활기차게 일하는 당신의 내일!
이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힘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만나보세요

상담에서 교육, 취업알선, 사후관리까지 취업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취업 도우미입니다.

직업상담
- 1:1 맞춤형 취업상담
- 취업정보 제공
-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

직업교육
- 무료 직업 교육
- 주부 인턴제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특화교육

취업알선
- 개인별 맞춤형 취업 알선
- 구인구직 정보 DB 관리

사후관리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서비스
-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여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대표전화 일을 구해 드립니다

아이폰 '충격'… 소프트웨어가 살길이다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 우리 산업의 핵심동력의 하나로 간주돼왔던 휴대전화 시장은 새로운 기술에 착안해 다양한 기능을 선보임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왔다. 두께가 1센티미터도 안 되는 휴대전화, 벨소리가 화려한 휴대전화, 화면이 선명한 휴대전화, 사진이 잘 찍히는 휴대전화 등은 기술진보에 기초한 제품들이며, 이는 기술에 사람들이 순응하도록 유인해온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휴대전화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2007년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가 미끈해 보이지만 밋밋한 휴대전화를 공개석상에 들고 나왔을 때 대다수 전문가들은 성공 여부에 의문을 가졌다. 애플 스스로도 시장 점유율의 1퍼센트가 목표라고 밝혔을 만큼 애플의 시도는 짐짓 무모하게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반전됐다. 6백 달러라는 비싼 가격에도 선풍적인 인기몰이가 시작된 것이다. 그 원인은 기존 제조사들이 기술에 기반해 세련되고 화려한 휴대전화를 만들어 파는 것에 치중한 반면, 애플은 사용자 처지에서 편리한 휴대전화를 설계하기 위해 고심하고 휴대전화를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뒀다는 데 있다.

아이폰에 적용된 아이디어 중 가장 혁신적인 것은 바로 앱스토어다. 애플은 스마트폰 사용자를 단순한 소비 주체로 보지 않고, 이들이 지닌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인쇄기로 똑같은 그림을 찍어내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지만, 사람들에게 도화지와 붓을 주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는 가치와 효율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애플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자유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자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애플과 개발자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신천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는 오늘날 불현듯 떠오른 개념은 아니다. 웹의 진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화두가 돼온 '개방과 참여'라는 이슈를 모바일 웹 환경 아래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데 애플이 선두에 섰고, 기업경영 측면에서도 모바일 환경에서의 소비자 욕구 파악과 충족이라는 지극히 고전적인 질문에 애플이 선도적으로 반응했을 뿐이다.

우리의 경우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단말 분야에서 세계 1위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술에 사람을 순응시키려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성의 여지가 크다. 애플 아이폰의 성공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전이가 가속화될 것과 개방형 소프트웨어 기반의 무선 환경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더욱 다이내믹하게 전개될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단말, 소프트웨어 플랫폼,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는 단말기산업 계층구조상 우리가 가장 취약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무선과 유선을 통합해 스마트폰, 인터넷(IP)TV, 개인용 컴퓨터(PC)를 연동시키는 '3Screen' 서비스와 같은 독창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모바일산업 생태계 내의 모든 플레이어(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체, 콘텐츠 제공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상호 참여하는 개방형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조성하고, 이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나가야 한다. G

Weekly
2010.03.24
No.53(통권 154호)

Contents

표 지 이 야 기

通할 것인가, 束할 것인가.
손끝 하나로 멀티태스킹의 신세계를 편력할 것인가, 손바닥만한 애물단지 안에 상상력과 집중력을 감금할 것인가. 스마트폰 앞에서 느닷없이 떠오르는 존재론적 고민. 그러나 언뜻 차가워만 보이는 스마트폰의 최첨단 기능성 뒤에는 콘텐츠의 민주적 공유라는 훈기가 피어오른다.
그렇다면 일단 한번 '터치' 해볼까?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3.2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스마트폰이 이끄는 '모바일 빅뱅'

가히 '모바일 혁명'이다. 스마트폰이 불붙인 모바일 열풍이 빛의 속도로 밀려들고 있다. 1990년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팀 버너스리가 '월드와이드웹(WWW)'을 발명한 지 20년. 이제 세계는 '아이폰'으로 상징되는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정보기술(IT), 그리고 소셜 네트워킹을 통한 양방향 IT를 동력으로 '두 번째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손안의 인터넷' 스마트폰은 '앱'이란 새로운 유행어를 만들고 기존의 IT 강자들을 뒤흔들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위기와 기회를 함께 맞게 된 IT 세계의 지각변동!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52호(3월 17일자) 기획특집 '지역발전이 국가경쟁력'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역발전, 기대됩니다!"

"우리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선 지역의 특성과 이미지를 중시하고, 효율적이고 특성화된 정책이나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특집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부디 권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잘 발전시켜 지역경제도 살리고 글로벌 경쟁력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마다 나름의 개성과 특색이 있기에 그것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습니다."_최영지

"수도 서울만 날로 비대해져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러기에 지역발전을 골고루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정책이 뿌리내려 앞으론 지방으로 삶터를 옮기는 국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_황복희

"수도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등으로 나눠 지역발전 정책을 상세히 소개한 기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정말 경쟁력 있는 브랜드 국가가 되겠구나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권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는 희망을 주는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사례를 바탕으로 희망찬 성공 바이러스가 널리널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_ jewelseul

"세종시, 4대강 사업 원만히 추진돼 환경·경제 함께 살아나길…"

"좁은 국토지만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뤄나간다면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서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세종시 문제도 해결되고 4대강 사업도 원만히 추진돼 환경과 경제가 모두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_최성열

52호 생활정보 '봄나들이 TAGO 가자'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주말여행을 손쉽게 계획해볼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사례로 시작해 좋았고, 'TAGO'에 직접 들어가 보니 소요 시간, 비용, 최단 거리 등이 나오고 문자 전송까지 가능한 매우 유용한 사이트더군요. 좋은 사이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_구슬

52호 이 사람 '김밥할머니의 뜻,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기사를 보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50억원을 기부한 고(故) 이복순 여사에 관한 기사를 읽고 나눔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입적한 법정 스님의 말처럼 무소유를 실천한 고 이복순 여사의 숭고한 삶을 닮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 여사의 이야기가 자라나는 새싹들의 가슴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나눔의 정신을 심어줬으면 합니다."_이정윤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

알립니다

초중생 문화유산 영어해설 경진대회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전국 초중학생 고궁 영어해설 경진대회'가 5월 4일 덕수궁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아름다운 고궁과 그 안의 문화유산을 영어로 해설하는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의 소중함도 깨닫게 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 방법과 다음과 같다. 국제교류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4대 궁 및 종묘 해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 원고와 발표 동영상을 만들어 4월 12~17일 사이 방문하거나 웹하드, 우편으로 제출한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학교 3학년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22일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 12명을 선정한다.

덕수궁 중화전 앞에서 열리는 본선은 5월 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경연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된다. 대상과 최우수상 각 2명에겐 문화재청장상, 우수상과 장려상 각 4명에게는 국제교류문화진흥원장상을 수여할 예정. 대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겐 10년간 고궁 무료입장권을 주며 청소년 문화유산해설사 교육 혜택과 외국인을 위한 고궁해설 봉사활동 등의 기회도 제공한다.

국제교류문화진흥원 icworld.or.kr 문화재청 Tel **042-481-4745**

식·의약품 규제개선 아이디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에 이어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분야와 녹색생활 정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식약청은 이번 국민 제안 공모를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 등 미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식·의약품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힘쓸 방침이다.

식·의약품 규제개선 분야는 △청년실업 해소 등 일자리 창출 대책 △저출산·고령화 대책 △국가품격 이미지 제고 대책 △기업 활성화 대책, 녹색 생활공감 정책 분야는 △신성장동력 과제(바이오, 의료기기, 의약품) △녹색성장 과제(기후변화 대응, 녹색산업·녹색소비·녹색기술 연구개발) △생활공감 과제 등을 주제로 국민 아이디어를 받는다.

우수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최우수상(1백만원)과 우수상(50만원) 각 1건, 장려상(10만원) 5건을 선정해 상장 및 상금을 6월 중 시상한다. 아이디어 제안은 4월 10일까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식약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우편으로 접수시키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Tel **02-385-2048 kfda.go.kr**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빈칸의 답을 연락처와 함께 3월 31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 로

1.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계 장치의 몸체를 통틀어 이르는 용어. 소프트웨어는 이것과 대립되는 말이죠.
4. 본래는 트럼프에서 최강의 패(A)를 말하며, '제1인자', '최고로 좋은'이라는 뜻. 야구에서 팀의 주전 투수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6. 유행, 패션, 양식, 기분, 태도, 음계, 최빈수 등을 가리키는 말이며, 컴퓨터에서는 특정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일컫는 용어이기도 하죠. "최신 OO로 한껏 멋을 냈구나."
7. 자체의 동력 없이 견인차에 연결해 짐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차량.
8. '우주를 탄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대폭발'을 뜻하는 말. 남성 아이돌 그룹의 이름이기도 하네요. "대한민국 스마트폰의 문화혁명! 모바일 OO이 시작되었다!"

세 로

2. 마른, 건조한,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 따위로 머리를 말리거나 다듬는 일. 단맛이 적고 쓴맛이 나는 포도주를 이르는 말. OOO클리닝. OOO아이스.
3.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검색할 때 특정한 내용이 들어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나 기호.
4. 유산소 운동의 한 가지. "언니는 OOOO으로 건강도 챙기고 몸매도 가꾸고 있다."
5. 모양이나 기능이 맵시 있고 단정하며 경쾌하고 똑똑하며 영리함을 뜻하는 말. 이것의 이름을 딴 휴대전화가 등장하고 있죠.
6. 본래 '움직일 수 있는'이라는 뜻으로, 휴대전화와 같이 이동성을 가진 정보통신 기기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공공 서비스도 이제는 OOO 시대…대한민국 'OOO 정부'가 떴다."

〈Weekly 공감〉 51호(3월 10일자) '공감퍼즐' 정답

가로 1 도깨비 3 반지 5 진달래 7 낚시 8 다둥이
세로 1 도르래 2 비타민시 4 지진 6 달팽이 8 다산

〈Weekly 공감〉 51호 '공감퍼즐' 당첨자

김수진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염지은 ·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
유정민 · 강원 춘천시 후평3동 석사2지구
최민철 · 경남 고성군 하일면 공룡로
최용범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이 코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만드는 지면입니다. 국민들이 호소한 고충이 실사(實査)를 거쳐 해결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국민 고충 접수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국번 없이 1588-1517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고충 해결사

해변마을의 행복한 피서철 만들기

해마다 여름이면 동해안의 바닷가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피서객으로 북새통을 이루게 마련. 그런데 유독 찾는 이가 드문 해변마을이 있었다. 주민들은 백사장 한가운데 버티고 선 군부대 소초 건물이 원인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나라 지키는 데 필요한 건물이니 어쩔 수 없지…' 하며 치미는 화를 달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소초 건물이 병력을 철수한 뒤에도 2년간 방치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소초 건물이 조만간 철거되거나 이전되리라 생각했던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군부대는 마을과 해변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한 것. 방음벽이 세워지면 소초 이전은 물거품이 될 뿐 아니라 바다마저 시야가 가려져 상황이 더 나빠질 게 뻔했다. 이 때문에 주민과 군부대 간의 갈등이 격해지자 마을 이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조사해보니 양측에 모두 분명한 이유가 있는 데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기도 어려웠다. 해결책은 해변에서 반경 2킬로미터 안에 있는 노는 땅을 찾아내 그 땅을 팔게 하고, 소초 건물을 그곳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었다.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댄 끝에 떠올린 생각은 국유지를 사용하는 인근의 K공단 관리부지와 민원 토지를 바꾸는 것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통해 "공단은 백사장이 펼쳐진 땅을 직원들의 피서지로 활용하고, 주민들은 해수욕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호소해 공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마지막 관건이던 관계기관장들의 재가도 국민권익위원장의 현장 방문으로 순조롭게 해결됐다.

정리 · 김지영 기자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유재범 서울 관악구 행운동

1. "우레와 같은 침묵으로 돌아간 법정 스님"기사가 가장 좋았습니다. 가시는 길까지 지금껏 살아왔던 것처럼 무소유의 철학을 실천하신 스님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스님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스님은 열반하셨지만, 그분의 행동과 말씀들은 온갖 위선과 탐욕으로 점철된 현대사회에 한 줄기 빛으로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입니다.
2.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발전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을 위한 중차대한 국가백년지대계인 만큼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3. 연이은 지진 발생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진에서 과연 안전지대인지 비상시 구호대책이나 예방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남이 경남 창녕군 영산면

1.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한다'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법 시행 이전의 성폭행범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은, 의도는 알겠지만 신중히 접근해야할 것 같습니다. 성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재범을 막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지만, 형벌 불소급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과거의 죄를 지금 만든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기획특집 중에서도 '창의력·인재가 지역경쟁력 높인다'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도권에 편중된 발전으로 그동안 지방은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낙후돼 있었습니다. 또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이 대거 서울에 몰려들어 국토의 균형발전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에 남아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권역별 특성화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3. 봄을 맞아 황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호에 나온 황사 예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줬으면 합니다. 또 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도 소개해 주세요.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3월 24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에서 다룬 '스마트폰이 이끄는 모바일 빅뱅'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기대됩니다! 4대강살리기

자전거 타고, 산책하고!
아빠랑 낚시하고, 엄마랑 인라인 타고!
강변음악회가고, 문화재들 보고!
홍수 잡고, 가뭄막고!
강가에서 캠핑도 하고, 밤하늘 별도 보고!
철새도 오고, 물고기들도 놀고!
물도 좋고, 사람도 좋고!
강 좋고, 바람좋고!
아빠~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강물가득
행복가득

"교장 등 고위직 공모로 교육비리 근절"

첫 교육개혁대책회의… 고강도 개혁 '신호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올해 교육개혁의 로드맵이 제시됐다. 고질적인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수석교사제 등 다양한 인사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대학원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박사양성 과제도 추진한다.

"경제를 회복하는 기본은 교육과 과학이다. 교육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2010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3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 서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교육개혁'의 의지를 다시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것"이라며 "올 한 해엔 교육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일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 대책'을 핵심 의제로 삼은 것은 교육개혁을 하려면 교육비리를 뿌리 뽑는 게 선결과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태완 교육개발원장, 임해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등 참석자들은 교육비리를 견제할 제도개혁과 외부 감시기능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핵심은 인사구조 개방이다. 우선 교장공모제 비율을 늘리고, 지방교육장 및 교육청 내 주요 보직에도 공모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감에게 교장 인사권, 재정권 등 권한이 집중돼 각종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5퍼센트 선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50퍼센트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장 연수 대상을 현재 결원 대비 1백30퍼센트에서 1백50퍼센트로 늘려 우수 교장 풀(Pool)을 확보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등 5개 교육청이 시범 도입한 지역교육장 공모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청에 지역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이 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받아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을 검토 중이다.

교육개혁 추진 일정

상반기 주제 · 교육 민생 및 교육 경쟁력 강화	
4월	우수 교사가 인정받는 교직문화 정착 – 교원인사제도 혁신(수석교사제, 교장임용제도, 전문직 체제 개편 등)
5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조성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성공 사례 확산 – 학교폭력, 학교급식 질 개선 방안, 인성교육 확대 등
6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확산, 학교 선택권 확대 – 마이스터고, 기숙형고, 자율고 등 운영 상황 점검
하반기 주제 · 국격 향상 및 미래 준비	
7월	수요자 중심 대학교육 혁신 – 대입제도 선진화 방안(입학사정관제, 수능 개편 등)
8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 유치원, 초중고 학교급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교과 내용 및 과목 조정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투명한 학사 운영 위해 학교장·장학관 등 재산 공개 확대

교장이나 인사담당 장학관 등 시도교육청 내 주요 보직을 임용할 때도 투명한 절차를 도입한다. 장학관 선발위원회의 경우 심사위원의 절반은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된 지 2년이 지나면 교장이나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4년으로 늘려 선호지역 학교 배치를 위한 경쟁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수석교사제를 확대해 교사들의 과도한 승진 경쟁을 완화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는 체제로 개편한다. 수석교사제는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를 선발한 후 연구비를 지급하고 신임 교사 지도권을 주는 제도다. 올해 초등 1백70명, 중등 1백63명 등 모두 3백33명의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했으며, 2012년까지는 전체 초중고의 20퍼센트인 2천 개교에 수석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명한 학사 운영을 위해 공개와 감시기능을 확대한다. 현재 시도교육청 본청 과장급 장학관부터 재산을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학교장과 인사담당 장학관도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도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며, 학부모 감사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 중 '비리 근절 노력 평가영역'을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수의계약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소액계약의 경우에도 전자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처럼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교육비리 근절 대책은 아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은 3월 19일 서울 도곡동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방문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EBS 수능강의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교육현장을 방문해 사교육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직은 '로드맵' 단계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추진 방향일 뿐 상세한 대책은 아니다. 앞으로 관계부처나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각계각층 교육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다양한 교육개혁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최수룡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 회장,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사범대학장, 정찬웅 한국델컴 대표 등이 교육비리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

"정권 바뀌어도 확고한 교육정책 만드는 게 중요"

지난 1월 국정연설과 2월 라디오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잇따라 강조했듯 교육개혁은 올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첫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교육정책은 사회정책과 달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시에 바뀌어서는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개혁대책회의는 앞으로도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는 교육 민생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교원인사제도 혁신, 기초학력 보장제도, 학교 다양화와 선택권 확대 등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국격(國格) 향상 및 미래 준비를 주제로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선진화 방안,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G

글 · 최은숙 기자

"사교육 없애는 게 정부 목표"

이명박 대통령, 한국교육방송공사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3월 19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방문해 학생, 학부모, 현직 교장, 교사 등 5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사교육을 없애자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EBS 수능강의와 대입수능 간 연계를 강화해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EBS 수능강의만 충실히 들으면 대입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교육이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학부모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가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면서 "세계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 교육체제도 바뀌어야 하지만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사교육을 없애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도 있지만, 너무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해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EBS 관계자에게 강의의 질을 높이고, 학생 수준별 맞춤식 강의를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건 부탁이다. 우리 손자, 손녀도 EBS를 보고 수능을 봐야 할 테니까"라며 "수준에 맞는 강의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시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EBS 방문은 3월 17일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 이후 첫 번째 교육현장 방문으로 '사교육 없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한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이토 포살"(砲殺)

순국 100주년… '군인 안중근' 구국 의지 재조명

올해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백 주년이 되는 날이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은 한국 독립전쟁의 한 부분이었고, 동양 평화를 교란하는 침략에 항거하는 메시지였으며, 우리 후손들을 자유로운 조국에 살게 한 단초였다.

탕! 탕! 탕! 1909년 10월 26일 옛 만주 하얼빈역에서 세 발의 총성이 울렸다. 안중근 의사가 쏜 총알이 조선의 국권 강탈을 꾀하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을 꿰뚫었다. 저격 후 안 의사는 태극기를 꺼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안 의사는 일제의 모진 심문과 재판 과정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안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의 독립 주권을 빼앗아간 침략의 원흉이며 동양 평화를 해치는 자이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이토를 포살(砲殺)했을 뿐이다. 이는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대한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결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전쟁 중에 잡힌 포로로 대접하여 마땅히 만국 공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안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뤼순 감옥에서 일제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졌다. 안 의사는 죽음을 며칠 앞두고 두 동생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국민 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고 유언했다.

일제는 안 의사를 처형한 후 시신 인도를 거부하고 비밀리에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에 설치된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과 '대한국인' 유묵. 독립기념관은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백 주년 특별기획전을 연다.

◀ 독립기념관 겨레의큰마당에서는 올 1년 내내 안중근 의사의 의거 장면을 재현한 기념전이 열린다.
▶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을 알리고 있다.

매장했다. 안 의사의 묘가 알려지면 국외 독립운동의 성지(聖地)가 될 것을 우려해 매장 장소도 극비에 부쳤다.

독립 영웅이 순국한 지 1백 년이 되었지만 그의 유해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효창공원에는 가묘(假墓)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 "제일 윗자리에 안 의사의 묘역을 잡아놓고 차례로 3의사의 유골을 봉장(奉葬)하였다"고 적고 있다. 언젠가 안 의사의 유해를 찾으면 제일 윗자리에 모시기 위함이었다.

안 의사의 유해 발굴 작업은 1986년 당시 외무부에서 중국 정부에 유해 매장지 확인과 관련된 조사 협조를 의뢰한 이래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여러 차례 진행돼왔다. 2008년에는 정부가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매장 추정지에 대한 발굴을 했으나 유해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유해조차 못 찾아 가묘만… 대대적 추념식 진행

안 의사 유해 발굴의 성공 가능성은 일본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일본 측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 황용해 사무관은 "일본은 유해나마 고국에 돌아오고 싶어 했던 안 의사의 염원을 존중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유해를 찾는 데 협조해 과거사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백 주년이 되는 날이다. 순국 1백 주년을 맞아 각계에서 나라 사랑과 동양 평화를 위해 헌신한 안 의사를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우선 3월 26일 정부 주관으로 중앙추념식이 거행된다. 3월 26일 10시 경복궁 흥례문 앞 광장에서 열리는 중앙추념식에는 추모공연도 함께 마련된다.

추모공연은 안 의사를 추모하는 춤 '기원', 평화를 염원한 안 의사의 꿈을 형상화한 역동적인 군무와 삼색 천 퍼포먼스인 '평화', 아시아 3국의 화합을 표현하는 현악 연주와 멀티미디어 영상쇼 '화합', 새 시대의 번영을 나타내는 독무와 배의 출항을 영상 이미지로 표현한 '번영'으로 이뤄진다.

해외 추념식은 3월 25일 11시 중국 다롄시 뤼순 감옥에서 광복회와 뤼순감옥박물관 주관으로 열린다. 추념식 후에는 뤼순 감옥 안중근 의사 전시실에서 '안중근 의사와 동양 평화론의 현재적 계승'을 주제로 국제 학술 강연회도 마련돼 있다.

미국 뉴욕에서도 백범 김구선생기념사업회, 광복회, 흥사단 뉴욕지회가 안 의사 추모식과 유묵전시회, 기념 강연회를 열어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애국애족정신을 일깨우고 교민들 간의 화합의 장을 만든다.

안중근 의사 순국 1백 주년을 기리는 전시도 다채롭다. 독립기념관은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순국을 주제로 한 '안중근 의사 순국 1백 주년 특별기획전 대한국인 안중근'을 연다. 전시를 통해 안중근 의사의 출생과 항일구국운동,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 처단, 안중근 의사의 옥중 투쟁과 순국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전시와 함께 '내가 꾸미는 안중근 위인전'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공판, 유언과 관련한 입체 카드 만들기' '안중근 의사 기념엽서 만들기' '안중근 의사 유묵 책갈피 만들기(유묵 자석 퍼즐 맞추기)' '하늘나라에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독립소식 전하기'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가 있다.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에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해외유적 탐방을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안 의사 동상과 기념비, 장흥 만덕사 위패 등 안 의사의 국내 유적 탐방도 계획하고 있다. 또 안중근 의사의 의거 기념일인 10월 26일 재개관에 맞춰 안 의사의 유묵 56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김호일 안중근의사기념관장은 "새 기념관의 강당 등을 활용해 '안중근평화학교'를 개설해 안 의사의 독립정신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이혜련 기자

한식재단 초대 이사장 취임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5대 발효식품 세계인의 식탁에 올리겠다"

'우리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반짝였다. 반평생 넘게 농업 현장에서 우리 먹을거리에 애정을 쏟아내던 열정이 묻어났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광우병 파동' 이후 한동안 흔들렸지만 다시 심지를 곧게 세웠다. 한식 알리기 전도사로 나선 것이 그 첫걸음이다.

한식재단 정운천 이사장은 "고추장, 된장 등 5대 발효식품을 토대로 한식을 참살이 음식으로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운천(55)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한식 세계화를 진두지휘하기 위해 먹을거리 문화의 현장으로 복귀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5개월 만에 장관직을 사퇴한 이후 1년 6개월여 만이다. '한식재단 이사장'이라는 새 이름표를 달고 출발선 앞에 선 그를 출범식 몇 시간 전에 만났다. 오랜만의 공식석상에 나섰지만 그는 어색해하거나 긴장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가 그토록 좋아하던 우리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잔뜩 꺼내놓을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에 차있는 듯했다. 정 이사장이 그간의 아픔과 슬픔을 지워내고 다시 일어서는 데는 우리 먹을거리, 즉 한식의 도움이 컸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아프고 쓰린 마음을 안은 채 1백일 전국 순례를 했습니다. 남해안 신안 신의도 천일염전을 기점으로 전국의 농업 현장과 산과 들을 찾아다녔지요. 그러다 경북 안동에서 도산서원을 거닐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매화나무를 바라보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매화나무와 함께 접한 시 한 수가 제 힘겨운 여정에 마침표를 찍어줬습니다."

농림부 장관 사퇴 후 농업 현장 찾아 전국 1백일 순례

그는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읊었던 한시를 소개했다. '불시일번한철골(不是一番寒徹骨)하니 쟁득매화박비향(爭得梅花撲鼻香)이라'. '뼈를 깎는 추위를 만나지 않았다면 매화가 아름다운 향기를 품을 수 없다'라는 뜻이다. 그는 장관 퇴임 후의 힘든 시기를 개인적인 아픔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동안 농업인으로서, 정책 집행자로서 우리 먹을거리에 대해 품었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후 그를 부르는 곳이면 어디로든 달려가 강연을 했고, 대한민국 요리 대경연대회, 전주비빔밥세계화추진단 고문 등을 맡으며 대외활동도 활발하게 했다.

장관 초기부터 우리 음식을 세계화하자고 주창했던 그는 이번에 한식재단이 출범하면서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에 드디어 시동이 걸렸다며 기뻐했다. 그는 "한식이야말로 우리의 역사

조영철 기자

와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외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발전했다면 이젠 한식을 통해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보이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참살이 시대에 효소식품이 많은 한식은 비만 등 성인병으로 위협받는 현대인들의 건강을 지켜내기에 그만인 훌륭한 전통음식입니다."

그는 김치, 젓갈, 고추장, 된장, 간장 등 5대 발효식품을 '우리나라의 보물'이라고 일컬었다. 특히 이들 발효식품을 만들어 내는 '장독 문화'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한식=웰빙음식'이라는 공식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유명 건강잡지나 논문에 한식의 이 같은 우수성을 적극 알린다면 10년 뒤쯤에는 '한식으로 건강을 찾자'는 마인드가 전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리라는 것.

한식 세계화를 위한 그의 비전은 아직 한껏 여유롭다. 2천 년이 넘는 우리의 전통음식을 알리는 데에 단기적인 계획은 별무효과라는 것이다.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짜서 차근차근 한식을 알려나가는 것이 그의 목표다.

민간기구인 한식재단은 농림수산식품부 한식세계화추진팀에서 꾸린 정책들을 바탕으로 실무를 수행한다. 정 이사장은 "한식의 정통성을 확립하려면 표준화가 절실하다"며 "우리 맛의 원형을 발굴한 후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들에게 맞는 음식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0년 장기 프로젝트 짜 차근차근 한식 알릴 것"

"이제까지 한식을 표준화하는 연구나 인증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한식재단은 이런 표준화사업을 기본으로 한식의 조리법이나 맛 등을 규격화해 한식을 브랜드화할 생각입니다. 또 해외 한식당들과 연계하는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를 통해 이들 한식당의 신뢰도를 높여갈 방침입니다."

그가 조금씩 드러내는 한식 세계화 아이디어에선 노련미가 묻어났다. 그도 그럴 것이 초대 한국키위협회 회장, 초대 한국농업CEO연합회 회장, 초대 농림수산식품부(그 전까지는 농림수산부) 장관 등 '초대' 자리를 여럿 맡아본 터라 처음 맡은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설렘이 크다고 한다.

"편한 일에 안주하기보다는 개척하고 창조하는 일이 제 성격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소통과 화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치, 지역, 세대, 노사 등 사회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먹을거리를 사랑하고 즐겨 먹는다는 것은 그 누구와도 갈등도 일으키지 않는, 오히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한식재단은 그런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정 이사장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김치찌개를 꼽았다. 그러나 지금은 콩으로 만든 된장국이다. 발효식품의 원천 격인 콩 하나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더욱이 콩을 이용한 한식을 많이 먹으면 어려운 형편에 놓인 우리 농촌도 살려낼 수 있다.

"불과 30~40년 전부터 들어온 패스트푸드로 인한 각종 질병이나 불임 등으로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몸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한식입니다. 우리부터 한식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한식이 세계 속의 참살이 음식으로 자리 잡는 날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한식 세계화, 앞장서겠습니다

민간전문기구 '한식재단' 공식 출범

한식재단

지난 3월 17일 출범한 한식재단은 한식 세계화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등에 힘쓸 계획이다.

한식재단이 3월 17일 공식 출범했다. 한식재단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현판식과 출범 기념식을 갖고 한식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출범식에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식재단 초대 이사장에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부이사장에는 송희라 세계미식문화연구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한식재단은 한식 세계화 실무를 총괄할 민간전문기구로 '온 국민과 세계인이 즐기는 한식'이라는 비전 아래 한식의 정통성 정립, 한식의 산업 진흥, 한식의 세계화 추구 등 3대 목표를 정했다. 한식재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식 세계화사업의 실질적 정책집행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외 한식당 인증사업, 해외 한식 조리법 표준화사업 등 10대 중점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국가별 해외 한식업 관련 기관 및 전문가를 조직화하는 '세계 한식 네트워크'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운천 이사장은 출범식에서 "한식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결정체로, 정통성 확립을 위한 원형 발굴과 우수성 규명 작업이 시급하다"며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한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주 방폐장 ‘순항’

주민 참여로 수용 안전성도 스스로 검증

포화 상태에 이른 방사능폐기물 처리의 해법을 드디어 찾은 걸까.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시공 안전성 검증 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원자력발전소 포화 폐기물의 저장과 처리에 대한 고민을 한결 덜었다.

‘뜨거운 감자’로 논란거리가 돼온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해 검증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경주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방폐장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3월 11일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환경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지 선정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적합하게 이뤄졌으며 방폐장 시공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협의회와 조사단은 “다만 방폐장 처분동굴(사일로)의 암반등급 편차가 큰 점이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유의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위치 변경 등 보완대책이 수립되면 시공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 검증 조사에서 제시된 제언 및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안전한 방폐장을 건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몇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폐기물 해수 침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하수 관측망을 광역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추가로 ‘수리 지질’의 상세 모델링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처분동굴 위치 변경에 대해선 진입동굴을 파나가면서 추가 지질자료를 확보한 뒤 적합한 설계와 시공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역 주민 직접 조사 참여로 ‘안전성’ 갈등 해결

방폐물관리공단 민계홍 이사장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안전한 방폐장 건설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민 이사장은 또 “검증조사 결과를 적극 수용해 안전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으로 방폐장 건설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폐장 건설 및 운영 등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폐물관리공단은 3월 중 경주시 성동동 경주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건설 및 지역 지원 사업 협의 및 본사 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동아DB

‘뜨거운 감자’였던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시공 안전성 검증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로써 포화 상태인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 및 처리시설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안전성 검증조사는 주민 참여를 통해 결정된 경주 방폐장 사업의 전통을 잇는 사례가 됐다. 실제로 경주 방폐장 사업은 고비를 겪을 때마다 주민 참여를 거쳐 의사를 결정해왔다. 정부는 19년 동안 9차례나 방폐장 건설사업에 실패한 끝에 2005년에야 어렵사리 부지 선정에 성공했다.

당시 경주는 군산, 영덕, 포항 등과 경합한 끝에 89.5퍼센트의 주민 찬성률로 방폐장 건설사업을 따냈다. 이후 논란이 적잖았던 방폐물 처분 방식도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처분방식선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 결정을 냈다.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도 주민 참여를 통해 일단락됐다. 경주 방폐장은 당초 오는 6월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6월 연약 지반이 발견돼 공사 기간이 30개월 연장됐다. 그 후에도 일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계속 논란을 제기해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정부는 대한지질학회에 '지연 진상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방폐장의 처분 안전성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으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 합의를 위해 다시 검증조사를 진행할 협의회가 구성됐다. 협의회는 경주시의회, 시민단체, 방폐장이 들어서는 동경주지역 주민대표 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민관이 함께 갈등 해결에 나선 것이다.

> **이번 안전성 검증조사는 주민 참여를 통해 결정된 경주 방폐장 사업의 전통을 다시 이었다.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도 정부나 사업자가 주도하는 형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민관이 함께 갈등 해결에 나선 끝에 결실을 본 것이다.**

협의회는 전문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조사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전문가를 추천해 '안전성 검증조사단'을 구성했다. 사업자들이 배제된 순수 전문가들로 꾸려진 조사단이 탄생한 것. 지질구조, 수리지질, 지진공학, 터널공학, 원자력공학 등 5개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경주 방폐장에 대한 안전성 검증조사를 벌여왔다.

인수저장 건물 우선 사용 필요성 등 주민 설명 나서

지난 8개월간 지속돼온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기존 원자력발전소 포화 폐기물의 임시저장 및 2단계 처분시설 설치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먼저 임시저장시설의 경우 월성과 울진 원자력발전소의 방폐물 저장능력이 지난해부터 포화 상태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울진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방폐물 1만7천4백 드럼(1드럼=2백 리터)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에 1만6천2백90드럼이 저장돼 있는 상황이다. 월성은 이미 방폐물 발생량(9천3백4드럼)이 저장능력(9천 드럼)을 초과했다.

동아DB

울진, 월성 등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방폐물 저장능력은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다.

방폐물관리공단은 경주 방폐장 준공 시기가 2012년 이후로 늦어짐에 따라 지상의 '인수저장 건물'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수저장 건물은 경주 방폐장으로 반입되는 방폐물을 영구처분하기에 앞서 방폐물을 인수해 검사하고 필요한 기간 동안 저장하는 시설. 이를 위해 방폐물관리공단은 지난해 연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 허가 승인'을 받고 저장시설 수요에 대비해왔다.

인수저장 건물을 우선 사용하려면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용 전 검사 외에 경주시의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방폐물관리공단은 협의회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3월부터 인수저장 건물의 우선 사용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민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주의 인수저장 건물은 4천 드럼을 상시 저장할 수 있도록 용도 허가를 받아 지어졌다.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임시저장 건물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설계 시공됐다는 게 방폐물관리공단의 설명이다.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사업도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게 된다. 방폐물관리공단은 1단계로 처분시설 공기 지연을 보완하고, 이어 2단계로 처분시설 건설사업을 조기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를 위해 협의회 위원 수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현재 방폐물관리공단은 방폐물 특성과 처분방식별 장단점을 재평가해 최적의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조사 및 설계에 착수할 예정. 설계 과정이 마무리되면 2013년부터 총 건설 규모 80만 드럼 중 10만 드럼의 방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준공하는 2단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G

글 · 유재영 기자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공익상 손해… 정지 조건 맞지 않아"

동아DB

법원이 한강(사진) 등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4대강 사업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되지만, 본안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4대강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3월 12일 경모 씨 등 6천2백1명이 "4대강 사업 중 한강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정비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의 집행을 정지시키려면 사업이 진행될 경우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고,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힘든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청인이 토지 수용으로 인해 팔당 유기농 해체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토지 수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금전 보상이 가능하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신청인은 "식수 오염과 취수 부족 등 환경권 이익과 건강권 침해를 야기"하고 "침수 피해로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침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시급히 사업계획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한강 유역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소명과 침수 피해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으로 "단양쑥부쟁이 등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태계 파괴 등은 개인적 손해가 아닌 공익상의 손해이기 때문에 집행 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정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면 상수원 수질 악화, 침수 피해, 생태계 파괴 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하천 공사 시행계획 고시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대전·전주지법에 냈다.

부산·대전·전주 행정소송에도 영향 줄 듯

이번 판결은 4대강이 위치한 네 곳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 가운데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기각을 한 법리를 타 법원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김계현 교수는 "이미 새만금, 사패산터널, 천성산터널 등에서 겪었듯이 국책사업에 대한 논란과 소송은 공사 지연, 국민 불편, 막대한 혈세 낭비, 그리고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만을 남겼다"며 "법리 논쟁보다는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공사를 감시하고 4대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하천유역협의체 등을 운영하는 것이 국민과 환경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도 자세를 낮춰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법원도 법리만 적용하기보다는 국민 혈세의 낭비와 하천 재앙을 막도록 조정자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G

글 · 이혜련 기자

동아DB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여기서 G20 정상회의의 서울 유치가 결정됐다.

"규칙 따라가던 나라에서 규칙 만드는 나라로"

〈파이낸셜타임스〉 한국 글로벌 리더십 주요기사로 소개

"한국은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국가에 속할 뿐 아니라 올해 가장 풀기 어려운 갈등의 하나로 등장한 위안화 가치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외교적 리더로서 부상하기도 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3월 17일자 7면에 '한국,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리더 역할 찾기(South Korea:Into position)'란 제목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의 역할을 찾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이례적으로 전면 게재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크리스천 올리버 서울지국장과 데이비드 필링 아시아 편집인이 작성한 이 기사는 이준 열사가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참석이 좌절되면서 할복한 이후 1세기 만에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면서 아픈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했다. 이어 기사는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UAE 원전 수주 등 한국 기업 활약상도 소개

기사는 한국이 특히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 그리고 최대 군사동맹국인 미국과 다 같이 대화하는 길을 알고 있다"고 강조하고, 기업 마인드를 가진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 기회를 한국이 성년(coming of age)이 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세상에는 규칙을 만드는 나라와 규칙을 따라가는 나라 두 종류가 있다"고 한 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소개한 이 기사는 한국이 "규칙을 따라가던 나라에서 규칙을 만드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전쟁의 폐허에서 이제는 일본을 추격하는 아시아 경제 부국으로 성장한 한국을 전 세계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면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처럼 한국의 국제무대 리더십 강화와 함께 기업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국제원조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아이티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소말리아 해적 소탕, 아프가니스탄 재건 등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한 것.

이 기사는 올 11월의 G20 정상회의가 "이 대통령 외교력의 최대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G20 의제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외교가도 위기 이후의 의제(어젠다) 개발에 집중하는 한국을 인상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국가의 외교적 위상 제고보다 한 발 더 앞서 국제무대에서 선전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럼에도 재벌에 집중된 경제구조, 고령화사회, 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 개선 등은 여전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더 좋은 세종시

모든 지역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세종시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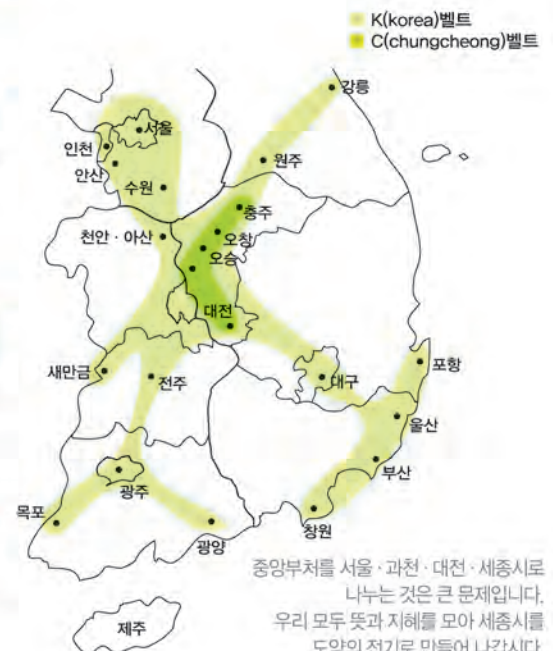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분산과 국토 발전에 효과가 큰 대기업과 대학이 입주합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나오는 과학기술과 창의적 인재는 다른 지역과 교류하며 확산돼 전체 국토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기업도시 · 혁신도시도 차별없이 지원합니다

세종시 인센티브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근 지역과 함께 하는 세종시 성공 모델은 국가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분권 · 특화 · 상생의 원칙으로 고루 발전시키겠습니다.

‘5+2 광역경제권’ 완성해 일류선진국가로 도약합시다

광역경제권 사업에 올해도 4조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기초과학에 초점을 맞추고 광역경제권은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서울 · 과천 · 대전 · 세종시로
나누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뜻과 지혜를 모아 세종시를
도약의 전기로 만들어 나갑시다.

스마트폰 시대

"손안에 on 세상"

가히 '모바일 혁명'이다. 스마트폰이 불붙인 모바일 열풍이 빛의 속도로 밀려들고 있다.
1990년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팀 버너스리가 '월드와이드웹(WWW)'을 발명한 이후 20년.
이제 세계는 '아이폰'으로 상징되는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정보기술(IT), 그리고 소셜 네트워킹을 통한 양방향 IT를 동력으로 '두 번째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손안의 인터넷' 스마트폰은 '앱'이란 새로운 유행어를 만들고 기존의 IT 강자들을 뒤흔들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위기와 기회를 함께 맞게 된 IT 세계의 지각변동, 그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보자.

조영철 기자

자유로운 무선 인터넷과 응용프로그램이 장점인 스마트폰은 새로운 모바일 시대를 열고 있다. 최근 문을 연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티움 체험관의 3D체험 코너.

모바일 빅뱅 "스마트하게 살자"

문득 고개를 드니 세상이 바뀌었다. 아이폰 이전 세상과 아이폰 이후 세상으로. 미국의 〈포천〉지가 '지난 10년간 최고의 CEO'로 선정한 스티브 잡스의 걸작품 아이폰은 스마트폰의 대표주자로서 모바일 빅뱅을 부르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 있다.

지난 겨울. 서울발(發) 사진 한 장이 한동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정전식 터치스크린 화면을 사용하는 아이폰은 손가락으로 터치해야 하는데, 겨울철 시린 손가락 대신 간식용 소시지를 사용해 아이폰을 터치하는 사진이 네티즌들의 공감을 부른 것이다.

어느 종류의 소시지는 된다 안 된다, 외국에서는 손가락 끝에 아이폰 스크린터치가 가능한 장갑이 출현했다는 소식까지, '아이폰'과 '소시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화제를 낳았다. 급기야 미국의 한 아이폰 아이템 판매 사이트가 화제가 된 소시지를 한국서 수입해 '가장 저렴하고, 쓰다가 먹을 수도 있는' 아이폰 아이템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아이폰이 가져온 기괴한 문화현상의 한 단면이었다.

정보기술(IT)의 아이콘인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가 2007년 선보인 아이폰은 기존의 IT업계 강자들을 제대로 한 방 먹였다. 아니, IT업계 강자들뿐만이 아니다. 기술적 진보에 의존하는 기존의 휴대전화에 익숙해진 모든 유저(User)들에게도 한 방 먹였다. 아이폰은 즉각 전 세계의 유행 코드가 됐고, 새 유행과 '코드'가 맞지 않은 이들은 스스로 감당 못할 이 첨단 휴대전화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오죽하면 휴대전화 사용법 교육까지 받아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KT가 출시한 아이폰은 출시 1백일 만인 지난 3월 5일 가입자 40만명을 넘어섰다. 4월 말이나 5월 초면 50만명에 도달한 전망이다.

아이폰은 제한 없는 인터넷 사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감각적인 터치스크린 등 첨단 IT 기술을 집약해 음성통신과 문자로 사용이 제한되던 기존 휴대전화의 개념을 바꿨다.

아이폰의 최대 강점은 애플의 온라인 장터인 앱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길 찾기, 독서, 음식점 검색, 음악과 게임 즐기기 등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는 '정보의 바다'와 다를 게 없다. 2008년 7월 개장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13만 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가 등록됐고, 5천8백만명의 사용자와 30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아이폰, 13만개 방대한 앱으로 일대 혁명 일으켜

이것이야말로 휴대전화라는 하드웨어에 대항해 소프트웨어가 일으킨 일대 혁명이다. 기존의 휴대전화가 하드웨어의 기능에 주목하고, 판매자가 설정한 프로그램만 사용하도록 소프트웨어가 설계된 반면 아이폰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앱스토어 역시 개방된 시장이란 점에서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블루오션의 탄생을 가져왔다.

한국 모바일 게임업체 컴투스는 앱스토어란 블루오션에서

▲ 티움 체험관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소록 저장, 자동차 시동걸기 등 각종 첨단 '스마트 라이프'를 맛볼 수 있다.
▶ 스마트폰 열기는 국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3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마트폰 '열공' 중인 의원들.

연합

대박을 터뜨렸다. 지난 3월 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KT가 주최한 IT CEO포럼에서 성공 사례로 발표된 컴투스는 지난해 해외에서 올린 매출 46억원 중 65퍼센트인 30억원을 앱스토어에서 벌어들였다.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손안의 컴퓨터'란 개념의 스마트폰은 개인의 일상생활을 넘어 증권과 쇼핑 등 모바일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정부 서비스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무선 랜(와이파이) 접속 기능이 탑재돼 공짜 무선 랜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사용의 자유로움, 사용자 선택에 의한 애플리케이션 탑재가 가능한 플랫폼, 진입이 자유로운 애플리케이션 시장 등 스마트폰의 매력은 곧 다른 스마트폰들의 등장을 불렀다.

미국 모토로라사가 만든 모토로이, 삼성전자가 만든 옴니아 시리즈와 안드로이드폰 등이 속속 국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업체들의 스마트폰은 인기몰이에 미흡하다. 탁월한 제품 성능과 달리 아이폰처럼 쓸 만한 애플리케이션이 많지 않은 탓이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바일 시장 개편은 결국 휴대전화 업계의 세계 2, 3위 생산국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위상까지 위협하고 있다.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지난 2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스마트폰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드웨어의 싸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즉, 스마트폰은 기계적 측면에서만 비교해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자진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수평적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란 설명이다.

폐쇄적인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에도 스마트폰에 힘입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네트워크 과부하, 음성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변화에 소극적이던 이동통신사들은 이제 앞다퉈 무선 인터넷 확장과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내세우며 무선 인터넷 시장의 최강자가 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아이폰을 서비스하는 KT는 경쟁업체인 SK텔레콤을 이기기 위해 아이폰 가입자에게 전국 1만3천여 곳의 '네스팟' 무선 랜 서비스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폐쇄적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

아이폰으로 촉발된 스마트폰 바람은 최근의 아이패드 출시로 더욱 강력한 모바일 열풍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이폰은 워밍업에 불과하다"며 지난 1월 12일 잡스가 세계에 처음 선보인 아이패드는 노트만한 크기에 노트북보다 친숙하며, 모바일 기기로서 스마트폰보다 기능이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꿈의 모바일 생활'의 실현이 한 걸음 더 다가온 것이다.

지식경제부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란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모바일 최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민간 부문에서 과감한 투자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조직문화와 경영방식의 도입을 통해 모바일 주도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도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중점 지원, 저전력·고성능의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 과감한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국내 모바일 시장의 테스트베드 기능을 복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미련할 정도로 자기 길을 가라."

잡스의 말은 모바일 열풍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응전을 준비해야 할 지금의 우리에게 절실히 와닿는 조언인 듯하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스마트폰과 함께한 하루

"똑똑하고 재밌는 녀석, 너 없인 못 살아"

전화만 받는 전화기는 이제 명함도 못 내민다. 글자 그대로 '똑똑한 전화기(스마트폰)'가 MP3 플레이어, 다이어리, 전자사전, 넷북 등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으로 완전무장을 하고 1인 다역을 능수능란하게 해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함께한 김 기자의 알차고 유용한 24시간 엿보기.

부드러운 음악이 귓가를 두드린다. 반쯤 깨어 있던 뇌가 완전히 맑아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5초.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던 몸은 자연스레 일으켜진다. 뻗은 손에 잡힌 기계는 알람보다 20분 빠른 시각을 가리키고 있다. 오늘의 수면시간은 6시간 30분.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몸은 가뿐하다. 밤새 수면 패턴을 분석해 일어나기 가장 적절한 때를 맞춰준 애플리케이션 슬립사이클(Sleep Cycle) 덕분이다. 눈을 비비며 이번 주 수면 시간표를 살펴보고는 좀 놀랐다. 침대에 눕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주말에 푹 자고 다시 수면 흐름을 되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허둥지둥 출근 준비를 하고 나오자 잡아타야 할 버스가 눈앞으로 획 지나가버렸다. 아직 리모델링되지 않은 옛날 정류장인지라 버스 도착시간을 알 수가 없다. 날씨도 춥고 시간도 빠듯한데 계속 기다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예전 같으면 당연히 고민했겠지만 이젠 그럴 필요 없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버스 안내 애플리케이션 서울버스(Seoul Bus)를 찾아 즐겨찾기에 저장된 노선번호를 터치한다. '70번 버스는 두 개 앞 정류장에서 오고 있다'는 희소식을 알려줬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니까 택시를 타지 않아도 된다. 9백원으로 편히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하루 예감이 좋다.

> **"누군가는 말할 수 있다. 삶을 옥죄는 방법 아니냐고. 또 누군가는 말할 수 있다. 알면 편하겠지만 모르고 살아도 괜찮은 기능들이 아니냐고. 다 맞는 말이다. 다만 편리한 즐거움이 없는 3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을 뿐이다."**

사흘을 고민하고 '지른' 스마트폰… 가방이 홀쭉해졌다

3분 뒤 도착한 버스 안에서 e메일을 체크했다. 데이터 정액제 덕분에 와이파이(WiFi)가 잡히지 않은 곳에서도 3차원 그래픽 데이터망을 통해 얼마든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내친김에 트위터 애플리케이션 트윗버드(TwitBird)를 열어 간밤에 쌓인 트위터 글들을 읽어봤다. 익스플로러로 이해하기 어렵던 트위터가 애플리케이션을 거치자 이해하기 쉬운 대화의 장(場)으로 변신했다. '오늘은 여유롭다'는 내 글에 친구가 오늘 볼 수 있겠냐고 답글을 보내왔다. '오케이'라고 응답을 보내고 나니 회사 앞. 주말을 앞둔 금요일의 업무가 시작됐다.

3개월 전만 해도 내 모토는 그랬다. 스마트폰이 뭐냐, 난 2차원(2D) 그래픽폰만으로 충분한 아날로그 인간이다. 그렇게 꿋꿋하게 버티던 나의 '대쪽 같은 절개'가 꺾인 건 회사 선배가 아이폰을 구입하고 나서였다. 그가 보여준 애플리케이션들은 이제까지 상상할 수 없던 세계였다. 컴퓨터 게임, 닌텐도 게임 등 오락에 열광하는 나는 구겨진 휴지를 손가락으로 끈 뒤 쓰레기통에 던져넣는 게임 페이퍼토스(Paper Toss)에 낚였다. 하루를 고민하고 이틀을 번뇌하고 사흘 동안 통장 잔액을 헤아린 뒤 결국은 '질렀다'. 황금 같은 점심시간을 바쳐 손에 든 스마트폰은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다. 장담하건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사과' 한 박스였다.

비싼 사과는 다행히 제값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 일단 가방이 가벼워졌다. MP3 플레이어가 사라졌고 전자사전이 사라졌고 책이 사라졌고 다이어리가 사라졌으며 급기야 넷북이 사라졌다.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감상하고 각종 사전 애플리케이션으로 단어를 찾으며 e북을 통해 몇백 권의 책을 손에 넣고 일정관리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시간 단위로 관리하는 가운데 글을 쓰고 웹서핑을 하는 기계 한 대만 손에 남았을 뿐. 어쩌면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책, 다이어리, 넷북을 합친 가격보다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더 싸다. 세간에는 이를 보고 '본전은 뽑았다'고 한다.

정서적인 변화는 더 크다. 회의 시간에 내내 휴대전화를 잡고 있으면 눈총 좀 받겠지만 스마트폰은 괜찮다. 일정관리 애플리케이션 투두(2Do)를 열어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다음 프로젝트 일정을 넣어 놓는다. 인터넷 주소(URL)를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과 일정을 공유할 수도 있을뿐더러 카테고리에 따라 일정을 분류하고 중요도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손으로 쓰는 다이어

리를 잊게 했다.

각종 메모도 이젠 아이폰 하나에 얌전히 들어앉았다. 일러스트레이터가 부탁한 자료는 바로 찍어서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로 보낸다. 자세히 보여야만 하는 사진이지만 접사 기능이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에 굳이 무거운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다.

회의에 들락거리는 가운데 하루 업무가 끝났다. 이제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즐길 시간이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업무시간에도 필요하지만 스마트폰이 제값을 발휘하는 시간은 퇴근 후다. 퇴근 준비 중에 왓츠앱(WhatsApp)을 통해 '오늘 갈 곳을 정하자'는 메시지가 날아왔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이들끼리 무료로 소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저녁에 가리라' 마음속으로 점찍어둔 가게의 위치와 평을 맛집 애플리케이션 윙버스(WingBus)를 통해 재확인한 뒤 친구에게 '어떠냐'고 물었다.

애플리케이션 활용법 따라 기계도 되고, 장난감도 되고

일찍 도착했고, 친구는 좀 늦을 것 같다고 한다. 별로 춥지 않은 날씨에 안심하며 역 앞에 걸터앉아 짧은 게임을 즐긴다. 빠르게 떨어져 내리는 동그라미나 세모를 음악에 맞춰 손가락으로 톡톡 치는 리듬게임 탭탭 리벤지3(Taptap revenge3)은 어느새 레벨 12를 '찍었다'. 아이폰의 중력 인식기능을 적용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손목을 비틀어줘야 하는 게 재미있다. 한 곡을 마치고 나니 친구가 도착했다.

술집에서 흐르는 감성적인 음악에 둘 다 귀가 솔깃해졌다. 음악을 '듣고' 누구의 무슨 곡인지 찾아주는 사운드하운드(Soundhound)를 켜고 들이밀었다. 몇 초 안 돼서 나온 생소한 그룹명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도 잠시, 밑에 뜬 유튜브의 콘서트 실황에 반해 이름을 기억해놓았다. 다음번에 아이튠즈로 구입해야겠다.

어느새 늦어진 시간에 한 잔 더 시킬까 말까 고민하던 친구 앞에 지하철 애플리케이션 지하철(Jihachul)을 내밀며 안심시켰다. 그녀의 집까지 가는 열차의 막차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았다. 혹시 몰라 늦게까지 하는 2차 장소도 알아둔 참이다. 오늘 밤은 어쩌면 '똑똑한' 메모장 오섬노트(Awesome Note)에 기록될지도 모르겠다. 술로 빨개진 얼굴들이 담긴 사진과 함께. 모어로모(Morelomo)같이 특수 기능이 딸린 사진 애플리케이션을 거치면 막 찍은 밤도 예술이 되리라.

스마트폰의 참맛은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 그 활용법에 따라 그저 기계덩어리가 될 수도, 즐거운 '장난감'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이 장난감은 편리하기까지 하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다. 삶을 옥죄는 방법 아니냐고. 또 누군가는 말할 수 있다. 알면 편하겠지만 모르고 살아도 괜찮은 기능들이 아니냐고. 다 맞는 말이다. 길을 가면서까지 웹서핑을 하고 애플리케이션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며 빛과 정보의 홍수 속에 파묻혀 사는 삶이 반드시 옳다고 주장할 정도로 뻔뻔하지는 않다. 다만 편리한 즐거움이 없는 3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을 뿐이다.

참, 길게 주절주절 늘어놓느라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을 잊어버릴 뻔했다. 각종 영역을 아우르는 이 똑똑한 녀석은 무려 '전화 기능'도 제공한다. 오 세상에, 이런 신세계를 버리라고? 난 못해! G

글 · 김은영(동아사이언스 기자)

일러스트 · 남동윤

영화 보고 정보 찾고 공부도 하고…

스마트폰 200% 활용하기

스마트폰이 대세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라며 답답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래도 걱정할 건 없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의 비밀을 하나하나 벗겨가다 보면 어느새 '스마트폰 달인'을 넘보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각양각색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휴대전화 시장의 판도를 바꾼 스마트폰의 대표주자들.

3G 아이폰

A양의 스마트폰 생활백서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스마트폰 얘기만 해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스마트폰이 화제예요. 이거 모른다고 하면 놀림당해요. 휴대전화가 통화 성능 좋고 문자메시지 잘되면 그만이지 제아무리 잘나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저만 빼고 다들 스마트폰을 쓰더라고요. 이제 회사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바꾸래요. 문서결재도 자료처리도 스마트폰으로 하겠대요. 이제 어쩌나!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미개인 취급을 당할 텐데….

조바심에 일단 근처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갔어요. 점원이 아이폰, 옴니아, 모토로이 등을 꺼내놓고 이것저것 설명하는데 머릿속이 공중 3회전 반 트리플 러츠 상태네요. 90만원! 이런, 가격도 장난이 아니네요. 그런데 눈 딱 감고 2년만 약정계약하면 보조금이 쏟아지네요. 점원 말 듣고 있자니 스마트폰 덕분에 펼쳐질 행복한 미래가 눈앞에 아른거려요. 스마트폰을 잘 쓰면 애인에게도 사랑받고, 동료나 상사에게도 인정받을 테니까요. 아직 약정 만기까지 반년이나 남은 '샘송전자 애몰레드'가 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과감히 스마트폰으로 갈아타요.

포장지 벗기려니 가슴이 콩닥콩닥. 초기화면을 보니 막막하네요. 잔뜩 깔린 네모난 단추는 과연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게다가 손끝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화면이 휙휙 넘어가요.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누가 알려줄 수 없나요?

와이파이로 언제 어디서나 빵빵 터지는 무선 인터넷

우리 주변에는 A양처럼 스마트폰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 두려움을 가진 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제 걱정일랑 붙들어 매시라. 스마트폰 역시 휴대전화인 건 매한가지다. 다만 기능에 차이가 있을 뿐. 물론 그 차이가 크긴 하다. 하늘만큼 땅만큼.

스마트폰은 글자 그대로 영리한(Smart) 휴대전화를 말한다. 그야말로 손안의 퍼스널 컴퓨터(PC)다. 컴퓨터처럼 운영체제와 중앙처리장치(CPU)를 갖췄다. 물론 기존 휴대전화도 둘 다 갖추고 있지만 성능에서 큰 차이가 난다. 아반떼와 포르셰의 차이라고나 할까.

스마트폰은 그만큼 뛰어나고 영리하다. PC처럼 각종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쓸 수 있다. 설치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내비게이션도 되고 사전, TV도 된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사실상 무한대로 깔아 쓸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에 매료되는 이유 중 하나다.

스마트폰의 최대 강점은 다름 아닌 무선 인터넷 기능이다. 3세대(3G) 휴대전화 데이터 통신 외에 와이파이(WiFi)를 통한 무선랜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 집이나 직장에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무선 인터넷 공유기(유선 인터넷을 무선으로 바꿔주는 기기)만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공짜로 즐길 수 있다.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카페에서도 마찬가지.

얼마 전까지 휴대전화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네이트'(무선 인터넷 버튼) 키를 혹시라도 잘못 눌러 요금폭탄을 맞을까 걱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와이파이로 접속해 공짜 웹서핑도 하고 앱스토어에서 최신 게임과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내려받았다고 자랑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동통신회사의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에 가입하면 큰 부담 없이 최대 1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추가 과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다.

e메일 확인부터 MP3 듣기까지 자유자재

통상 스마트폰은 아이콘으로 기능을 분류한다. 아이폰, 옴니아2, 안드로이드 등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 화면구성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기능을 메인화면에 아이콘으로 등록해놓았다. 캘린더(일정관리)나 시계, 카메라, 연

안드로이드폰

옴니아2

블랙베리

동아DB

락처, 메일, 웹 검색, 설정기능 등이다. 사용자는 이 화면을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다.

날씨 확인이나 계산기, 쪽지, 음성 메모 등의 기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테니 넘어가고 검색기능부터 살펴보자. 먼저 휴대전화 화면이 커봐야 3인치인데 웹서핑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은 접어도 좋다. 아이폰을 비롯한 모든 스마트폰은 두 손가락을 대고 벌리거나 좁히면 화면이 저절로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처음 아이폰을 접한 이가 가장 놀라워하는 기능이 멀티터치(두 손가락 조작) 기능이다. 이처럼 스마트폰에서는 화면의 제약이 웹서핑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대부분이 온라인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화면에 최적화된 모바일 사이트를 운영한다. 웹사이트도 빠르게 로딩되니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번엔 e메일을 확인해보자.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스마트폰의 설정메뉴에서 등록하면 된다. 또 포털사이트로 들어온 메일은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스케줄 관리도 편리하다. 주간, 일간, 월간 일정을 미리 입력해두면 알람처럼 제때 내용을 알려준다. 스마트폰의 가장 유용한 기능 가운데 하나다.

PC의 아웃룩 메일이나 스케줄러 데이터를 옮겨올 수도 있다. 인기 드라마 〈추노〉에 나오는 이대길과 최장군, 왕손이의 초콜릿 복근을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고 싶다면 스마트폰이 제격. 인터넷상의 동영상을 내려받아 옮겨놓기만 하면 된다. 스마트폰마다 파일 포맷을 디코딩하는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 번만 넣어두면 언제든 동영상 플레이어로 간편하게 볼 수 있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 단 이때는 요금이 부과되니 공짜 와이파이존에서 시청한다.

MP3도 같은 방식으로 저장하면 된다. 아이폰은 MP3 플레이어의 대명사인 아이팟터치에서 진화한 것인 만큼 음악감상

블랙베리?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스마트폰 알고 고르세요

현재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스마트폰으로는 애플의 아이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모바일폰, 리서치인모션(RIM)의 블랙베리 등을 들 수 있다. 애플 아이폰은 스마트폰으로는 사실 후발 주자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스마트폰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시장을 꽃피웠다는 점에서 단연 첫손 꼽힌다. 2007년 초 미국에서 처음 발표된 이래 편리한 사용자 환경(UI)과 빠르고 미려한 그래픽 처리, 14만 개에 달하는 방대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스마트폰의 왕좌를 차지했다.

여기에 맞불을 지핀 것이 구글 안드로이드다. 인터넷 검색 서비스업체인 구글이 지난 2007년 만든 스마트폰용 플랫폼이 안드로이드인데, 같은 해 구글은 이를 무상으로 휴대전화 업체에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글이 제공하는 검색정보는 물론 e메일과 일정관리, 사진, 문서번역, 메모, 뉴스, 유튜브 동영상 등 다양한 기능을 스마트폰에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강점.

애플은 아이폰을 직접 생산하지만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배포함으로써 삼성전자나 LG전자, 모토로라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를 탑재해 휴대전화를 판매하게 하고 있다. UI나 그래픽 처리는 아직 아이폰에 미치지 못하지만 휴대전화 자체의 하드웨어적 성능은 전문업체들이 대거 참여했기에 더 뛰어나다는 평가다.

캐나다 리서치인모션사의 블랙베리는 주로 기업들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인데 e메일 전송에 강점이 있다. PC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e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보안성이 뛰어나 기업들이 업무용으로 선호한다.

윈도모바일폰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PC용 운영체제인 윈도를 휴대전화에 맞게 간소화한 윈도모바일을 탑재한 휴대폰. 국내에서는 옴니아2나 쇼옴니아가 대표적이다.

조영철 기자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카페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짜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기능이 탁월하다. 삼성전자의 옴니아2는 SK텔레콤의 ‘멜론’ 음악이 공짜다. 언제든 무선으로 인터넷이 연결하는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MP3 파일을 감상할 수 있다.

자신에 딱 맞는 ‘앱’으로 나만의 폰 만들어

여기까지는 약과다. 스마트폰을 얼마나 똘똘하게 이용하는지는 자신에게 필요한 앱을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에 달렸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법. 앱을 찾으려면 일단 앱스토어로 가야 한다. 실상 앱스토어 가입 절차는 만만치 않다. 대신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도전해보자.

아이폰의 경우 먼저 계정을 등록하고, ‘아이튠즈(iTunes)’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한 뒤에야 아이폰용 앱스토어에 들어갈 수 있다. 아이튠즈는 음악이나 동영상 등 데이터화된 콘텐츠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아이팟용 동기화 프로그램이다.

계정에는 유료결제를 위한 카드번호까지 넣어야 한다.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땐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안심해도 좋다. T스토어니 쇼스토어니 하는 국내 이동통신사의 앱스토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앱스토어에 익숙해지면 신세계가 펼쳐진다. 자신의 조깅코스를 추적해 운동량을 계산해주는 조깅 프로그램, 골프 라운딩을 할 때 홀컵과의 거리를 계산해주는 캐디 프로그램, 여행자를 위한 위치별 안내 프로그램 등 관련 소프트웨어가 무궁무진하다.

길이 험할수록 목적지에 도착한 뒤 보람이 큰 법이다. 앱스토어에 접속하면 그 방대함에 일단 놀라게 된다. 북, 비즈니스, 에듀케이션(교육), 엔터테인먼트(오락), 파이낸스(경제), 피트니스(건강관리), 라이프스타일, 음악, 내비게이션, 뉴스 등 분류가 다양하다. 아이폰 앱스토어의 경우 등록된 애플리케이션만 14만 개에 달한다.

이를 일일이 들여다보는 건 사실상 어렵다. 사용 목적에 따라 원하는 세부 분류에 들어가 눈요기한 뒤 필요한 앱만 내려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료 앱은 별도 가격이 표시된다. 필요한 앱을 발견하면 앱 소개 페이지로 들어가 내용을 읽어보고 샘플화

면도 점검해보자.

앱은 상단 왼쪽의 설치버튼을 누르고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설치된다. 앱스토어를 나와 메인화면에서 아이콘을 누르면 실행된다.

내비로, 전자책으로, 게임기로… '무한 변신'

앱스토어에 익숙해지면 신세계가 펼쳐진다. 일단 다음이나 구글 지도부터 살펴보자. 이를 이용하면 학교나 직장, 집 위치 확인이 바로 가능하다.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현재 내 위치를 지도에서 보고 주변의 실제 지형을 '로드 뷰(Road View)' 기능으로 보면서 목적지를 찾아갈 수도 있다. 사실상 내비게이션 기능을 대체하는 셈이다.

공공정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내버스'다. 각 지자체에서는 버스에 설치된 GPS의 위치추적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는데, 스마트폰이 이를 현 위치 정보와 결합해 버스 도착시간을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GPS 기능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은 이 밖에도 많다. 자신의 조깅코스를 추적해 운동량을 계산해주는 조깅 프로그램, 골프 라운딩을 할 때 홀컵과의 거리를 계산해주는 캐디 프로그램, 여행자를 위한 위치별 안내 프로그램 등 관련 소프트웨어가 무궁무진하니 용도에 맞게 설치해보자.

모바일 금융서비스도 인기다.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이 서비스 중인데 PC 뱅킹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옮겨 담으면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금융서비스는 N프로텍트,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등 각종 보안시스템 때문에 다운 일보 직전인 PC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 한번 써보면 PC로 하던 온라인 뱅킹이 번거롭게 느껴질 정도.

지역별 맛집이나 요리 레시피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있다. 골목길 외진 맛집 찾기도,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 접대용 술안주도 이제 문제없다.

음악을 좋아한다면 스마트폰의 송화기를 불면서 연주하는 오카리나나 하모니카, 스마트폰을 흔들면서 연주하는 바이올린 등 악기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아마존닷컴의 '킨들(Kindle)'이나 애플 앱스토어의 '스탠자(Stanza)' 같은 전자책 프로그램은 유료나 무료로 국내외 전자책을 내려받아 볼 수 있으니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진다. 심지어 성경책과 찬송가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다.

최근 등장한 '엠앤토크(M&Tallk)'와 '왓츠앱(WhatsApp)' 같은 스마트폰용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을 쓰면 문자메시지도 공짜로 전송할 수 있다. 또 인터넷용 음성 무료통화 프로그램인 스카이프(Skype)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전화도 공짜로 쓸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수익 감소를 걱정할 만하다.

스마트폰 관련 용어 알아두세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응용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되어 PC나 스마트폰에 설치해 쓰는 프로그램들이다. 가령 워드프로세서나 웹브라우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등 종류가 다양하다.

UI(User Interface) | 협의의 입력장치 또는 사용자 환경. 휴대전화의 경우 풀 터치 디스플레이와 같은 입력방식을 포함해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기능을 분류해놓은 것을 말한다.

앱스토어(APP STORE) |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의 줄임말로, 스마트폰용 콘텐츠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구입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장터다. 애플이 맨 처음 만들었는데 사실상 유사한 장터의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개발자들은 이 장터를 통해 자신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위치기반 서비스(LBS) | 무선 인터넷 사용자의 위치를 휴대전화에 내장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맞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무선 콘텐츠 서비스를 가리킨다.

플랫폼(Platform) | 소프트웨어 구동의 기초가 되는 시스템 환경. 운영체제(OS)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현실세계에 3차원 가상 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 1990년대 후반부터 연구개발이 진행됐으며 최근에는 위치기반 서비스와 결합해 의료나 방송, 건축설계, 제조관리, 기업 마케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쓰인다.

와이파이(WiFi) | 홈네트워킹이나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무선기술이다. 유·무선 공유기(AP)를 통해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무선으로 스마트폰이나 각종 노트북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AP(Access Point) | 액세스 포인트, 즉 무선 인터넷을 위한 연결기기로 유선 인터넷을 무선신호로 바꿔준다.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AP를 통해 공짜로 인터넷을 쓸 수 있다.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GPS와 동작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는 3D 화면처리 기술까지 지원한다. 덕분에 소니 PSP나 닌텐도DS를 능가하는 게임기가 된다. 자동차 회사들이 마케팅 목적으로 공짜로 제공하는 레이싱 프로그램은 핸들 대신 스마트폰을 좌우로 돌리면서 운전해 박진감이 넘친다.

이쯤 되면 스마트폰에 대한 호기심도 두려움도 어느 정도 해소됐을 터. 그럼 지금까지 익힌 방법을 되살려 '스마트폰 2백퍼센트 활용하기'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G

글 · 조성훈(아시아경제 기자)

일러스트 · 이우정

정보를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

스마트폰으로 본 사회학… "일상 정보 공유로 시행착오 줄어들 것"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다. 물론 산업적인 측면에서만은 아니다. 스마트폰도 그렇다. 단지 기술적 현상이 아니다. 의미심장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아직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이 피처폰(일반 휴대전화)에 비해서는 낮지만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은 열기를 더해갈 것이다. 이를 일시적인 유행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스마트폰은 PC와 마찬가지로 범용 운영체제(OS)를 기본으로 해서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설치해 쓸 수 있다. 단말기의 성능에 있어서도 PC 수준에 근접해 1기가헤르츠(GHz)급 고속 프로세서, 수 기가바이트(GB)의 메모리, 3~4인치급 터치스크린의 하드웨어 탑재가 기본 사양으로 되고 있다. 아울러 빠질 수 없는 것이 인터넷 접속능력이다. 스마트폰은 노트북 컴퓨터와 동일한 무선 랜(WiFi)과 3세대(3G) 이동통신망을 활용한다.

이는 본격적인 유비쿼터스 환경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기기 성능의 발전이라는 요인과 함께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 확산에 또 다른 도약대가 되고

있다. 대표적 스마트폰인 애플의 아이폰 앱스토어에는 2008년 7월 개장 이후 2009년 12월까지 13만 개 이상의 응용SW 및 콘텐츠가 등록됐으며, 약 5천8백만 사용자와 30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기기의 확산과 애플리케이션의 제작 및 활용이 선순환적인 형태로 구조화한 것이다.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등장은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은 기술에 대한 담론을 끊임없이 생산해낸다. 특히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테크놀로지는 다른 테크놀로지에 비해 담론의 양도 많고 관심의 정도도 훨씬 강하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경우 사람들은 주어진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이용방식을 개발해내면서 기존의 생활습관이나 문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별 기술의 독특한 이용방식을 찾아갔다. 또한 기술과 문화의 '공진화(共進化)'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만들어가기도 한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은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라이프 로깅(Life Logging)'의 일상화이다. 라이프 로깅이란 일상의 모든 기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엔 한정된 공간과 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개인 일상에 대한 기록이 스마트폰의 활용을 통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뤄짐을 뜻한다.

"테크놀로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행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무엇이든 활용이 증가할수록 그에 대한 의존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미디어'가 아니라 새로운 '구속'이 되지 않도록 선용(善用)의 슬기로움이 필요한 때다."

능숙자-미숙자 소통 간극 커져

트위터로 대표되는 '마이크로블로깅(Microblogging)'을 통한 라이프로그뿐 아니라 개인의 일정표와 인터넷에서의 흔적, 그리고 위치 정보까지 기록되면서 그야말로 일상에 대한 전면적인 기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기록된 일상은 삶의 흔적을 불러(Recall)와 우리의 삶을 반추해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공유(Share)를 통해 같은 경험을 하게 될 타인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타인에게 노출됐을 때 감당해야 할 엄청난 위험이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두 번째로는 즉시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활용을 통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진다는 점이다. 항상 연결돼 있는 단말을 통해 획득 가능한 정보,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앱의 활용은 개인이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앱 가운데 하나가 현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장 합리적인 이동수단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위치 정보와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활용해 개인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편의성 증가와 함께 앱스토어를 통해 개인들의 시장 진입이 자유로워지면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의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스마트폰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늘 유익하고 긍정적인 면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한 고민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이는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불거진 정보 격차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당연히 정보의 활용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PC에 기반을 둔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분배에 의한 공동 이용이 가능했지만, 스마트폰은 개인화된 단말기라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소유'와 '무소유'만 있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기기 활용능력의 차이에 따라 스마트폰 소유자 사이에서도 이용 수준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경험한 바 있는 일종의 세대 격차와 비슷한 현상을 예상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가 다양한 방식의 소통이라는 점에서 소유자와 비소유자, 그리고 능숙한 이용자와 미숙한 이용자 사이의 '소통 단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속성상 이제 더 이상 공사(公私)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일과 여가의 구분이 어려워졌다는 측면과 끊임없이 도착하는 정보 때문에 생기는 피로감은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테크놀로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행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무엇이든 활용이 증가할수록 그에 대한 의존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미디어'가 아니라 새로운 '구속'이 되지 않도록 선용(善用)의 슬기로움이 필요한 때다. G

글 · 배영(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IT기기에서 무선 인터넷 가능

스마트폰 이외에도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다양한 정보기술(IT) 기기가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들의 장벽을 없애는 신기술이 나오는 한편 무선 인터넷 시장을 스마트폰에만 제한하지 않고 일반 휴대전화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펼치기도 한다. 스마트폰이 방아쇠를 당긴 모바일 무한경쟁, 그 뜨거운 현장.

스마트폰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업계에서는 음성통화 외의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이제 앞다퉈 모바일 단말기 간 기술적 경계를 허물고 있다.

우선 스마트폰과 다양한 휴대기기들의 칸막이를 없애는 '테더링(Tethering)'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테더링'이란 별도의 무선 모뎀이 없어도 와이파이(WiFi·근거리 무선 통신망) 칩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개인컴퓨터(PC)나 휴대 기기에 연결해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현재는 와이브로나 아이플러그(i-Plug) 같은 별도의 무선 모뎀이 있어야 노트북에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아이폰이나 쇼옴니아 등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른 IT 기기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테더링' 기술로 언제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 이용 가능

KT는 최근 '모바일 브로드밴드' 전략을 발표했는데, 모바일 브로드밴드란 무선모뎀, e북, 태블릿PC 등 데이터 중심 단말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모바일 브로드밴드 전략 가운데 핵심으로 이 테더링 기술을 활용키로 했다.

KT는 테더링 기술에 맞는 요금제로 '지능형 공유(스마트 셰

연합

통합 LG텔레콤이 최근 출시한 맥스폰은 일반 휴대전화지만 스마트폰과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새로운 형식의 휴대전화다.

어링)'란 의미의 OPMD(One Person Multi Device) 서비스를 이달 중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하나의 통합 데이터 요금제로 3세대(3G) 이동통신 모듈을 갖춘 e북, 태블릿PC 등 여러 대의 IT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OPMD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선 인터넷을 쓰기 위해 IT 기기마다 별도의 가입비나 기본료를 낼 필요가 없다. 스마트폰 대상 정액요금제 하나만 가입해 스마트폰에서 남은 무료 데이터 용량을 다른 모바일 기기의 접속에 돌려 쓸 수 있게 된다.

모바일 데이터 시장에서 KT가 이런 공격적 전략을 펼 수 있는 것은 무선 데이터망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G 이동통신망은 경쟁사들 못지않고, 전국 주요 도시에 깔린 와이파이망과 서울, 수도권에 구축한 와이브로망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KT 측은 "테더링으로 생기는 3G망의 과부하를 분산하기 위해 올 초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것과 같이 와이브로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넷스팟 액세스포인트(AP)를 기존의 3만8천 개에서 7만8천 개까지 확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T의 와이브로망도 오는 10월까지 부산 등 5대 광역시로, 내년 3월까지 모든 시 지역으로 확대된다.

통합 LG텔레콤은 스마트폰은 물론 일반 휴대전화에서도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오즈(OZ)2.0' 서비스를 내놓았다. LG텔레콤은 최근 무선 인터넷 서비스 오즈의 출시 2주년을 맞아 '오즈2.0 전략설명회'를 열고 일반 휴대전화에 최적화한 응용프로그램 '오즈앱(App)', 통합형 응용프로그램 거래장터 '오즈스토어'를 각각 선보였다.

일반 휴대전화로도 '스마트폰처럼' 모바일 인터넷 이용

복잡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일반 휴대전화로 필수 프로그램들을 쉽고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이 주요 핵심이다. 스마트폰 중심의 경쟁사와 달리 일반 휴대전화를 포함한 어떤 휴대전화에서도 인터넷을 빠르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해 더 많은 모바일 이용자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LG텔레콤은 최근 출시한 '맥스(LG-LU9400)'에 이 같은 새 전략을 모두 담았다. 범용 운영체제(OS)를 탑재하지 않은 이 제품은 스마트폰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 휴대전화 최초로 퀄컴사의 스냅드래곤 1기가헤르츠(GHz) 프로세서를 장착해 6백~8백 메가헤르츠(MHz)대에 불과한 국내 휴대전화들을 앞섰다.

특히 일반 휴대전화로는 최초로 와이파이를 탑재함으로써 무선랜 공유기를 이용해 데이터 통화료 없이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오즈앱'을 통해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1기가헤르츠 처리속도의 프로세서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 구동 속도를 높였다. 이로써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뉴스, 블로그, 지도, 날씨 등의 서비스가 내장돼 별다른 절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T

KT는 스마트폰을 모뎀처럼 사용해 e북, 태블릿PC 등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들에 무선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테더링 기술을 도입한다. 1월 27일 KT 이상훈 기업고객부문 사장이 KT의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 **"지능형 공유(스마트 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 대상 정액요금제 하나만 가입해 스마트폰에서 남은 무료 데이터 용량을 다른 모바일 기기의 접속에 돌려 쓸 수 있게 된다."**

LG텔레콤은 오는 5월쯤 맥스폰처럼 성능이 뛰어난 일반 휴대전화 '캔유(canU-T1200)'도 선보일 예정이다. 6월쯤 내놓을 안드로이드폰에는 한국형 무선 인터넷 표준 '위피(WIPI)' 플랫폼도 장착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내놓던 제품을 그대로 들여와 기존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는 경쟁사의 안드로이드폰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이다.

LG텔레콤은 하반기 출시할 대부분의 휴대전화에 와이파이를 탑재하는 한편, 고객들이 요금을 줄일 수 있는 유·무선 융합(FMC) 상품도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통합 LG텔레콤 퍼스널모바일(PM) 사업본부 정일재 사장은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전화를 아우르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오즈를 진화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모바일산업 아웃룩(Outlook) 포럼'에서는 스마트폰 급성장에 따른 모바일 기기, 소프트웨어,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미래 진화 방향 등이 다뤄져 향후 모바일 업계의 진화 방향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에서 소개된 2015년의 미래 진화 방향을 보면 다중통신, 저전력 기술, 3D화면, 오감인식 등의 기능을 갖춘 모바일 기기가 나올 것이며 웹 OS, 단말 간 협업, 맞춤형 상황 인지 등이 가능한 모바일 소프트웨어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테더링 기술과 일반 휴대전화의 와이파이 탑재 등으로 '단말 간 협업'이란 미래 과제는 벌써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G

글 · 이종용(서울파이낸스 IT부 기자)

모바일 혁명으로 재편되는 하드웨어 업계

"터치 아니면 IT기기 아니죠, 그냥 기계지"

hardw

지난 1월 5일. 구글은 자사의 스마트폰 '넥서스원'을 전격 공개했다. 구글의 기본 소프트웨어와 검색 기능, 메일, 지도 등을 기본으로 장착했다. 여기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다. 구글 측은 넥서스원의 성능에 대해 "3, 4년 전 당신이 보유했던 노트북 컴퓨터와 비슷한 성능을 지녔다"고 강조한다.

인터넷 검색으로 성장한 구글이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한 스마트폰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업계에선 '인터넷 신화를 모바일에서도 이어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모바일 비즈니스 시대에도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 그만큼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기기는 하드웨어 시장은 물론 모바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시장과도 직결된다.

경희대 경영대학 이경전 교수는 "모든 휴대 기기의 스마트폰화와 전자태그(RFID)와의 결합 등에 힘입어 본격적인 스마트 모바일 기기 시장이 꽃을 피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마트폰 | 애플 아이폰 vs 구글 안드로이드폰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 대수는 50만 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올 들어 시장조사기관과 업체들은 국내 시장을 최대 2백만 대로 잡고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스마트폰 판매 목표를 2백만 대 이상으로 잡고 관련 제품 20여 종을 내놓을 예정. KT도 올해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전체 10~15종 가운데 6종을 안드로이드폰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업체들의 계획대로라면 전체 시장규모는 4백만 대에 이를 수도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 시장에 가속도가 붙은 것은 애플 아이폰 도입과 함께 무선 인터넷과 콘텐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통신사들도 폐쇄형 무선 인터넷에서 개방형으로 급속히 서비스 형태를 바꾸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스마트폰 기기 경쟁은 '애플 vs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축약될 가능성이 높다. 애플 아이폰의 인기는 여전하고, 안드로이드 진영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신형 휴

조영철 기자

여러 스마트폰 중 애플의 아이폰은 각종 애플리케이션이 적용돼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대전화를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도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윈도 모바일을 활용한 옴니아를 통해 스마트폰을 내놓았지만 우물 안 개구리 신세였다. 국내 시장에선 1위지만, 글로벌 시장에선 대만의 HTC에도 뒤진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3퍼센트 수준. RIM의 19.6퍼센트와 애플의 17퍼센트에 비해 크게 뒤진다. LG전자는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

동아DB

이에 삼성전자는 올해 40여 종의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최근 전체 휴대전화 개발인력 중 스마트폰 인력을 30퍼센트까지 확대해 스마트폰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국내 시장에는 올해 안드로이드 OS 중심으로 20여 종의 스마트폰을 내놓는다는 복안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하드웨어 측면에선 국내 업체들이 여전히 앞서 있다"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와 MS의 윈도7 등을 채택한 스마트폰 생산이 본격화하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국내에서도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아이폰은 애플 전용이지만 안드로이드폰은 여러 제조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 역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아직 안드로이드폰 애플리케이션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이 부문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예상했다.

태블릿PC | "키보드 시대는 갔다" 터치스크린 장착

지난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10'에서 앞다퉈 공개한 제품군 중 하나가 태블릿PC다. MS의 스티브 발머 CEO는 HP와 손잡고 만든 태블릿PC 모형을 들고 나와 "키보드 시대는 끝나고 인간의 몸이 입력도구가 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고 선언했다.

태블릿PC는 4, 5년 전 선보였지만 시장에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면서 그 연장선에 있는 태블릿PC가 모바일 비즈니스에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이폰의 성공은 터치스크린의 성공을 보여줬고, 배터리 성능 향상과 무선 인터넷 발달은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업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MS에 이어 애플도 태블릿PC 아이패드를 통해 관련 시장을 선점할 태세다. 구글 또한 태블릿PC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블릿PC가 보편화하면 스마트폰에서는 힘든 신문과 책 읽기, 케이블TV 시청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바일 비즈니스가 일상생활에 성큼 더 다가서는 것이다.

태블릿PC와 함께 모바일 비즈니스의 일상화를 가져올 제품으로는 e북이 손꼽힌다. e북 시장은 지난해 3백만 대 규모였지만 올해에는 6백만 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종이책에 없는 네트워크 기능을 갖추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태블릿PC 판매가 늘어나면서 e북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태블릿PC에 e리더 기능을 넣어 e북 리더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블릿PC와 e북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은 한발 뒤처져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개발은 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 내놓기에는 여건이 미성숙했다는 입장이다.

기타 기기들 | "PMP 등 기기 간 융합 가속화"

모바일 비즈니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대적으로 휴대성이 떨어지거나 무선 인터넷 기능이 약한 제품들은 사양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중간에 위치한 모바일 인터넷 디바이스(MID)가 대표적이다.

MID란 화면 크기가 7~17센티미터(국내 출시제품은 주로 12센티미터)인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PC기업 등에서 MID 제품을 내놓았지만 시장 반응은 미미하다. 울트라 모바일 PC(UMPC)도 비슷한 상황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넷북 등에 밀려 사실상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했다. 이미 UMPC 시장에서 실패를 맛본 삼성전자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

네모파트너즈 김동준 부사장은 "PC 중심에서 스마트폰, 넷북 등 모바일 기기 중심으로 시장이 이동하고 있다"면서 "모바일 기기 간 융합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새로운 기기들의 등장도 예상된다. 김중태 IT문화원 원장은 "모바일 비즈니스와 관련된 새로운 입출력 기기들, 특히 가상화면이나 접는 디스플레이, 빔 화면, 빔 키보드 등이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G

글 · 김병수(매경 이코노미 기자)

모바일 혁명으로 재편되는 소프트웨어 업계

'앱' 뒤흔들 콘텐츠로 대박 꿈꾼다

만화 〈드래곤볼〉에는 상대의 전투력과 체력 등을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스카우터'가 등장한다. 작은 안경처럼 생긴 이 스카우터를 쓰고 있으면 적이 어느 수준의 싸움 능력을 가졌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처럼 만화에서나 볼 수 있던 '증강현실'을 스마트폰에서도 실제로 접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증강현실 서비스 '오브제'가 바로 대표 사례다. 키워드를 입력해야 하는 기존 인터넷 검색 방식과 달리 '오브제'는 기본 정보가 전혀 없어도 보이는 사물을 통째로 보여주고 해당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세종문화회관을 지나가다 어떤 공연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휴대전화 카메라를 세종문화회관에 비추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바로 '오브제' 내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연결, 공연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검색, 공연 예약 전화 연결 등을 할 수 있다.

증강현실뿐이 아니다. 다이어트 고민에 늘 시달리는 여심을 공략한 '군것질 쉐이커'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다이어트 최대의 적인 군것질을 참을 수 있도록 돕는다. 군것질의 유혹이 몰려올 때 아이폰을 흔들면 화면에 갖가지 음식이 진열되며 칼로리를 보여준다. 눈요기하면서 칼로리를 계산하다 보면 식욕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매일 '앱스토어' 들락거리며 "넌 어떤 앱 받았니?"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이 탑재되지 않은 스마트폰은 한때 시장에서 찬밥 취급을 받을 정도로 DMB는 휴대전화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이었다. 그러나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젊은 층은 DMB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최근 스마트폰을 구입한 대학생 김주현(21) 씨는 "트위터, 미투데이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푹 빠져 있다 보니 방송 프로그램을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다. 김 씨처럼 이른바 'SNS족'에게 이동하면서 블로그나 트위터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스마트폰은 필수다.

이 밖에도 버스가 올 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노선정보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노선은 물론 환승을 위한 최단 거리 출구 정보까지 알려주는 지하철 프로그램도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겐 필수 아이템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별도의 내비게이션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구동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매일 '앱스토어'라 불리는 모바일 오픈마켓을 들락거리며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는지 살핀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너는 어떤 프로그램을 내려받았니?" 하면서 서로의 응용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는 이도 적지 않다.

삼성전자의 옴니아2와 애플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이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장을 형성하면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는 '스마트폰 광풍'이 불고 있다. 이미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1백만명을 돌파했고, 전문가들은 올해만 3백만에서 최대 4백만명의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구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텔레콤 윤준원 마케팅 전무는 "아이폰과 애플 앱스토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사용자와 개발자를 확보하면서 저변을 넓히고 있다. 국내에서 이처럼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SK텔레콤

스마트폰 카메라로 세종문화회관을 화면에 잡으니 공연 정보가 뜬다.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덕분이다.

vare

LG텔레콤

'손안의 PC' 스마트폰은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마음대로 골라쓸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유도 하드웨어(아이폰)와 풍부한 소프트웨어(앱)가 결합된 '완성된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열악하기만 했던 국내 모바일산업 생태계가 확 달라지고 있다. 시장 규모도 작고 이동통신사에 종속적인 구조여서 그동안 모바일 콘텐츠나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늘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강세로 인해 모바일 인터넷이 개방형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대박 신화'를 꿈꾸며 모바일 콘텐츠 개발 시장에 뛰어드는 개발자가 적지 않다.

실제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들을 지도에 표시해주거나 노선별로 도착 예정시간을 제공하는 버스정보 프로그램 '서울버스'를 개발해 앱스토어에 올린 고등학생 유주완 군은 아이폰용 개발자들 사이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서울버스는 전 세계 앱스토어에서 2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모았다. 또 게임 개발자 박희종 씨가 개발한 심리테스트 애플리케이션 '퀴즈퀴즈미'는 국내 앱스토어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 유료 콘텐츠 내려받기 1위를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

전화기 아닌 PC로 인식… 온라인 장터와 결합 준비

이 같은 스마트폰 열풍은 휴대전화의 경쟁력이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라는 것을 강하게 각인시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PC)다. 따라서 PC의 확장 영역을 고려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ISDI 동향분석실 공영일 책임연구원은 "스마트폰 이용 패턴이나 활용도를 고려할 때 음성통화 비중보다 음악이나 동영상, 기타 콘텐츠 이용 비율이 높다. 즉 음성통화는 스마트폰의 한 가지 기능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전화기가 아닌 PC로 인식하고 이 무한한 확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온라인 장터와의 결합이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게 공 연구원의 설명이다.

> **"아이폰과 애플 앱스토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사용자와 개발자를 확보하면서 저변을 넓히고 있다. 국내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도 하드웨어와 풍부한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완성된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애플과 구글은 이 같은 스마트폰의 근본적 변화를 인지하고 단말기 외에 온라인 장터를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왔다. 그 효과는 이미 전 세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단말기 회사와 개발자 간 수평적 협업모델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확충함으로써 제품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콘텐츠와 좀 더 넓은 오픈마켓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SK텔레콤은 향후 무선 인터넷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픈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정책 등 적극적인 개방형 플랫폼 정책을 시행한다.

SK텔레콤 마케팅전략본부 이순건 본부장은 "그동안 모바

KT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을 배우기 위한 스마트폰 아카데미가 인기를 끌고 있다. ▶ 애플, 삼성, LG에서 각각 운영하는 앱스토어.

일 콘텐츠는 전부 이동통신사를 거쳐야 하는 폐쇄적인 구조였지만 모바일 세상이 도래하면서 이제는 고객과 개발자 중심의 혁신적 에코시스템을 구축해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안드로이드 기반 개발자 육성을 위해 1백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KT는 △편리하고 저렴한 콘텐츠 사용 △개방·공유의 플랫폼 구축 △데이터 중심 네트워크로 전환 △무선 인터넷 사용에 적합한 다양한 단말 제공 등 다양한 방침을 펴면서 편리하고 저렴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응용프로그램과 개발 플랫폼 간 통신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단 휴대전화뿐 아니라 텔레비전 오픈 전략도 밝히는 등 아이폰을 필두로 모바일 생태계를 새롭게 꾸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수백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세웠다.

매력적인 '앱' 만들려면 발품 팔고 치밀하게 관찰해야

LG텔레콤은 아직도 절대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일반폰 이용자를 위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발상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새로운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전략 '오즈 2.0'을 통해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폰' 이용자도 스마트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LG텔레콤 정일재 개인사업부문(PM) 사장은 "일반폰 이용자라 하더라도 무선 인터넷 이용 요구는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비스를 혁신한 것이 오즈 2.0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개발자와 모바일 사업자들에게 '신천지'처럼만 여겨지는 앱스토어. 과연 꿈의 무대일까. 개발자들에게는 다소 기운 빠지는 일이겠지만 냉정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LG전자 MC상품전략실 이진원 책임연구원은 "앱스토어는 이미 '거기가 뜬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막연한 도전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레드오션이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팔리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면 정확한 기획과 타깃 설정이 중요하다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는 "초기 이용자(얼리어답터)가 호기심에 한두 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일반 사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려면 '매력요소'가 있어야 한다"며 "정체에 빠진 시장을 활성화하는 소비계층이 있는데 그들을 공략할 수 있는 매력적인 앱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앱스토어는 이미 '거기가 뜬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막연한 도전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레드오션이 됐다. '팔리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면 정확한 기획과 타깃 설정이 중요하다.**

결국 앱을 구매할 타깃 고객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돈 없는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진원 연구원은 "타깃 고객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수요자들을 찾아다니며 관찰하고 인터뷰해 현장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아이디어와 소스코딩 능력만 가지고 '팔리는 앱'을 만드는 것은 99퍼센트 불가능하다. 1퍼센트 성공했다면 그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타깃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 상품을 기획했을 때 비로소 팔릴 만한 매력을 갖추게 되며, 이 매력이 대중 시장을 활성화하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

글 · 강은성(아이뉴스24 기자)

5만원짜리 앱×100만명 = 월 매출 500억

"세상은 아이폰 이전과 이후로 나눠졌다"

김중태 IT문화원 원장

'스마트폰은 아이폰 이전과 이후 시대로 나눠진다'고 할 정도로 아이폰은 모바일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바꿨다. 애플 아이폰이 혁명적인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개발자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했다. 애플은 앱스토어(APP Store · 애플이 운영하는 아이폰 및 아이팟 터치 응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전 세계 개발자 누구나 앱스토어에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올려 팔 수 있고, 매출의 70퍼센트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쥐고 있던 권력을 플랫폼 업자 중심으로 이동시켜 이동통신사와 소프트웨어 업체의 관계를 '갑을형' 수직구조에서 '파트너형' 수평구조로 변화시켰다.

기술적으로는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등장하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현실세계에서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프로그램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아이폰에 도입된 위성위치확인단말기(GPS), 전자나침반, 중력센서 등의 하드웨어 기술과 휴대전화 업계 최초로 적용시킨 멀티터치 UI(User Interface) 등이 다양한 증강현실 프로그램의 탄생을 이끌고 있다.

자동차 GPS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 2D, 3D로 제작된 지도에 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시간 영상 및 목적지의 입체적 정보까지 알려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간 하드웨어 성능 위주로 개발됐던 휴대전화는 플랫폼과 그 위에서 돌아갈 소프트웨어 성능이 절묘하게 결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도 콘텐츠와 서비스가 결합된 제조업체로 거듭나야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

스마트폰은 모바일산업만 개편시키는 것이 아니다. 정치, 사회, 언론, 문화, 경제 전반을 개편시키고 있다. 한 예로 스마트폰 뱅킹 시장을 차지하지 못하는 은행은 하위로 처지거나 도태될 것이다. 한국 모바일 뱅킹이 인터넷 뱅킹에서 차지하는 금액 비율은 2009년까지 0.9퍼센트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하나은행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아이폰용 뱅킹 프로그램인 '하나N뱅크'는 지금까지 약 6만명이 내려받았으며, 기업은행은 9만명, 신한은행은 하루 1만7천 건의 내려받기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스마트폰 뱅킹 시장이 은행의 흥망을 움켜쥔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유적 안내와 번역 시스템은 관광 가이드 없이 혼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만들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관광, 자동차, 물류, 유통 등의 일반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차세대 기술과 스마트폰의 연동이 미래 시장의 승자 결정"

결국 스마트폰이 새롭게 담당하는 분야의 과거 산업군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1세기 들어와 보급된 전자사전, MP3P, PMP, 휴대용 게임기, PDA 등의 최첨단 산업도 스마트폰에 통합되면서 곧 사라질 전망이다.

물론 스마트폰은 사라지는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서비스'와 접목된 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한 예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아침마다 원어민과 함께 영어를 배우는 스마트폰용 원어민 회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게 돼 월 5만원 내는 고객 1백만명이 가입한다면 월 매출 5백억원대의 대형 회사가 탄생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스마트폰과 모바일은 기존 산업군에 위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다.

결국 스마트폰 시대에 성장하는 기업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될 것이다. 스마트폰의 각종 신기술을 남보다 앞서 받아들이고, 소셜 네트워크 및 노매드웹 등의 차세대 기술과 연동시키는 기업이 미래 비즈니스의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G

동아DB

스마트폰은 모바일산업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을 개편하고 있다.

세계 1위 오른 대한민국 전자정부 스마트폰에서도 인기

2010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세계 1위에 올랐다. 1백9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당당하게 세계 정상에 오른 대한민국 전자정부. 이제 급속하게 변화하는 모바일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을 위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으며 생활 속으로 성큼 들어선 모바일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가 '대박'을 터뜨렸다. 정부 곳간을 다루는 부처라서?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출시한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시사경제용어사전'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출시 4일 만에 인기 순위 1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물론 무료 분야이긴 하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앱스토어에서 연속 사흘간 무료 부문 1위에 오르고, 이달 들어서도 3월 18일까지 이 부문의 북 분야에서 계속 1, 2위를 지켰다는 점은 기획재정부로서 기분 좋은 일일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16일 저녁 처음 등록된 이 애플리케이션은 등록 직후 단숨에 내려받기 순위 1백위 권 안에 진입했으며, 18일에는 2위로 치고 올라갔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아이폰 앱스토어에는 매일 평균 50~1백 개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된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1백위 권 안에 진입해보지도 못한 채 사용자들에게서 잊혀진다.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황순구 팀장은 "정부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취업준비생이나 수험생, 직장인 등 시사경제용어가 필요한 수요층에 파고들어 인정받았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황 팀장은 "시사경제용어사전이 인기를 모은 것은 경제 운용의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최근의 경제 동향을 반영해 만들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감수해 권위를 높였으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업데이트가 된다는 장점이 작용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이 시사경제용어사전을 검색하다 찾는 단어가 없을 경우 업데이트를 원하면 기획재정부의 담당부서 메일로 업데이트 요청이 전해진다. 지난 2월의 경우 1천2백 단어에 대한 업데이트 요청이 접수됐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연속 사흘간 '1위'

기획재정부는 향후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공 콘텐츠의 범위를 시사경제용어에서 경제지표, 정책자료 등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 아이폰 이외에 옴니아폰 등 윈도 기반 스마트폰과 구글 기반 안드로이드폰용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법제처의 경우 3월 2일부터 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총 25만여 건에 달하는 국가법령 정보를 무료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공식 편찬·발행기관인 법제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축적해온 법령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개발한 이번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무엇보다 방대한 규모의 자료를 자랑한다.

이 서비스에는 4천여 건에 달하는 현행 법령, 6만여 건에 달하는 판례 원문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결정례 1만8천여 건,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2만여 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제공되고 있는 정부의 애플리케이션은 기획재정부와 법제처 이외에도 특허청, 국가기록원, 조달청 등 40여 개에 이르며 모두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다. 다만 통합 플랫폼이 없어 개인이 찾아서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애플리케이션을 한자리에 모은 '국가 앱스토어(가칭)'가 연내에 만들어진다."

법제처는 지난 10년간 축적해온 법령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개발한 국가법령 정보를 스마트폰에 무료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는 법제처가 인터넷에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수록 정보가 거의 모두 올라 있다.

칙 12만여 건 등 법제처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수록 정보가 거의 모두 포함돼 있다. 현재 삼성 옴니아폰 등 윈도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법제처는 앞으로 아이폰을 비롯해 삼성 바다폰, 안드로이드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정승택 사무관은 "오는 4월 중 8만 건에 달하는 법령 연혁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며,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생활법령 정보, 입법추진 현황 등도 애플리케이션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대응해 제공되고 있는 정부의 애플리케이션은 기획재정부와 법제처 이외에도 특허청, 국가기록원, 조달청 등 40여 개에 이르며 모두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다. 다만 정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통합 플랫폼이 없어 개인이 찾아서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애플리케이션을 한자리에 모은 '국가 앱스토어(가칭)'가 연내에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김회수 과장은 "공공정보 활용 촉진 방안의 하나로 인터넷 사이트에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시장과 별도의 국가 앱스토어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국가 앱스토어에서는 정부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사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를 공개해 부가가치가 높은 민간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999년 시작한 지식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으로 3억여 건에 달하는 공공정보를 보유 중이다. 정부는 국가 앱스토어 활성화를 위해 공공정보 저작권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해 최근 저작권 문제가 불거진 스마트폰용 버스 실시간 운행정보 서비스 등이 자유롭게 개발되고 유통되도록 한다는 방침.

국가 앱스토어 연내 구축… 공공모바일센터 설립도

올해 버스 도착 정보 외에도 생활법령 정보 검색 서비스(법제처), 어린이 보육시설 서비스(서울시), 공공 취업 정보(행정안전부), 문화재 정보(문화재청), 생활·산업 기상정보(기상청), 공연·전시 정보(문화체육관광부) 등 모두 14건의 공공정보를 무료 개방한다. 오는 2013년까지는 모두 1백 건의 공공정보를 무료 개방할 계획.

김 과장은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공공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인 '공공모바일센터(가칭)' 설립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민간이 만들지 못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시범적으로 만들고 선도함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박경아 기자

삼성전자는 2월 1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0'에 스마트폰 운영체제(OS) '바다'와 이를 채용한 스마트폰 '웨이브(파도)'를 선보였다.

모바일 무한 진화시대 경쟁력 키우려면

단말기 1등 '우물 안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전쟁터로 나가자

한국이 하드웨어 중심의 '반쪽짜리 성공'에 도취해 있는 동안 스마트폰의 동력을 받은 모바일산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한국이 다시 모바일 강국으로 부상하려면 기업은 노동량이 아니라 창의력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고, 정부 정책은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던 우리나라가 최근 스마트폰과 함께 시작된 모바일 트렌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중심의 반쪽짜리 성공에 도취해 있는 동안 모바일산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했다.

모바일산업 변화의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다. 스마트폰은 모바일산업에 3가지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하드웨어 컨버전스(Convergence·기술이나 성능의 융합)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던 기존의 휴대전화 경쟁이 운영체제(OS)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국내 휴대전화는 애플의 아이폰보다 더 높은 하드웨어 스펙(Specification·기능)을 가졌음에도 더 느리게 작동하는 등 사용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되고 있다.

둘째, 모바일산업의 패러다임이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사용자들은 국내 통신사업자의 유통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앱스토어 시장(애플의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유통 장터)에서 상위 5위 안에 든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는 등 글로벌 유통망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 시장경제 체제 전환 대비해야

셋째, 피처폰(일반 휴대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 중심이 변화되면서 제조사, 통신사업자들이 결정한 제품 용도와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 환경이 도래했다.

이러한 변화에 맞서 경쟁력을 키우려면 앞서 언급한 3가지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하드웨어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대전화 산업 상위 3위(물량 기준) 안에 국내 기업이 2개나 있다고 자축했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의 중심인 스마트폰 시장에는 상위 5위 기업 안에 최근 겨우 한 개 업체가 진입했으며, 이마저 상위 3위권 업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진한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 보면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이 이미 휴대전화 시장 상위 3위권에 진입해 있다. 애플의 제품은 하드웨어적 스펙만 본다면 국내 제품에 비해 떨어지지만 OS와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적 성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과거 카메라폰 등 하드웨어 컨버전스로 시장을 이끈 국내 업체는 최신 하드웨어 부품을 빨리 외국에서 들여와 제품화하고, 이 부품을 신속히 국산화하고 대량 생산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선진 제품을 가져오더라도 빨리 국산화하기가 어렵다. 소프트웨어는 만든 사람이 아니면 쉽게 그 구조를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 업체들은 그간 하드웨어적 역량은 많이 축적했지만 OS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들여와 국산화해도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손을 대기 어렵다.

이런 소프트웨어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 먼저 정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 관련 산업과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기업들은 매일 밤새워 일하는 등 총 노동시간으로 경쟁했던 지금까지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력 중심으로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선진업체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그들의 역량을 빠르게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국시장에만 주력함으로써 세계시장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현상을 육지로부터 고립돼 고유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갈라파고스 제도에 빗대 '갈라파고스화'라고 한다.

한때 전화를 걸면 음악이 나오는 '컬러링' 서비스를 일본, 미국 등에 수출하며 국내 통신서비스가 모바일산업을 선도했던 적이 있다. 거기에는 콘텐츠와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위피(WIPI)라는 모바일용 플랫폼이 있었다. WIPI를 통해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콘텐츠 유통사업을 할 수 있었고, 휴대전화 제조사는 글로벌 업체의 한국시장 진입을 차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앞선 제품을 만들어 테스트하고 세계화했던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그러한 패턴을 유지하다 스마트폰 시장을 놓치는 과오를 저질렀다.

향후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 있다는 자만심을 버리고 다시 글로벌 혁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도 소비자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하드웨어적 접근이 통하고 갈라파고스적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기업 보호라는 명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 보호가 오히려 기업 퇴보를 가져왔다.

국내 기업 보호가 오히려 '기업 퇴보' 결과 가져와

이렇게 볼 때 정책 방향은 단기보다는 장기, 현상보다는 근본에 대한 고민에서 설정돼야 한다. 이제 정책도 기업보다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기업이 경쟁력 확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사실 정책의 방향성이 소비자 관점이었다면 정부가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를 선도해 통신서비스 업체와 휴대전화 제조사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모바일산업이 지금의 입지를 확보한 데는 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반쪽짜리이기는 하지만 하드웨어적 성공도 체험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에 대한 집착과 자만은 새로운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데 소극적으로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라는 장점이 있고 이를 잘 활용하면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적 패러다임에 빠르게 적응하고, 갈라파고스적 사고를 탈피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돼 대한민국은 모바일산업 분야에서도 다시 한 번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G

글 · 신동형(LG경제연구원 전자전략실 선임연구원)

동아DB

스마트폰 등장으로 이동통신업계 서비스가 24시간 체제로 바뀌고 있다. 서울 종로3가 'KT 종로플라자'는 새벽에도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 사용 편리하게 바꾼다

❶ PC → 휴대전화 파일 전송 허용
❷ 정액요금 인하
❸ 스마트폰 보급 확대
❹ 콘텐츠 활성화 기반 구축
❺ 와이브로 확대

'지금의 무선 인터넷 시장 상황이 계속될 경우 무선 인터넷 후진국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발표한 '무선 인터넷 활성화 추진계획'에 담긴 위기의식이다.

실제로 국내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시장의 현주소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2위,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점유율 세계 2위라는 'IT강국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5퍼센트에 불과하다. 웬만한 IT 선진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13퍼센트에 달한다. 모바일 기술은 세계 최고인 미국 대비 80.3퍼센트 수준으로 2.46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성장세도 답보 상태다. 2008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성장률은 13.1퍼센트로, 세계시장의 평균 성장률 30.5퍼센트에 못 미친다. 같은 해 모바일 인터넷 실질 이용자인 데이터 정액요금제 가입자는 10.8퍼센트로, 일본의 70퍼센트에 비해 크게 낮다. 모바일 인터넷 총매출액 대비 데이터 관련 매출은 17.4퍼센트로 일본(41퍼센트), 미국(25.5퍼센트)은 물론 주요 49개국 평균(23.7퍼센트)보다 낮은 형편이다.

정부는 이처럼 국내에서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폐쇄적으로 운영됐으며 △음악, 게임 위주로 모바일 콘텐츠가 제작되고, PC 인터넷에 비해 다운로드하기 어려운 유통 경로 △도입 초기의 과도한 데이터 요금 및 복잡한 과금제로 인한 부정적 인식 등이 모바일 인터넷 시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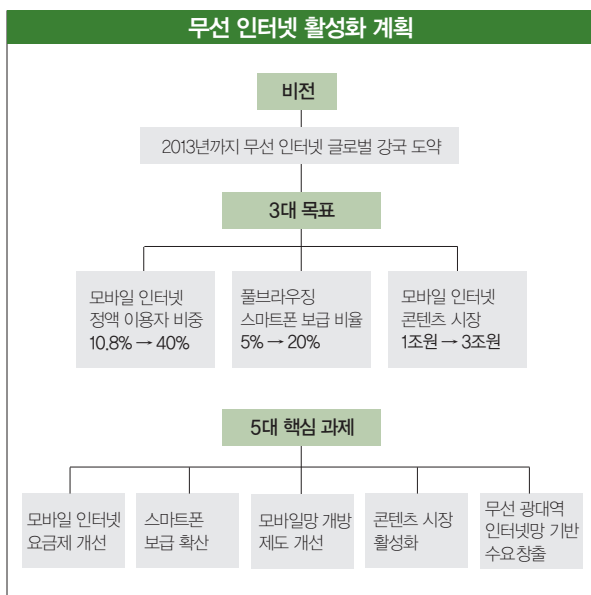
모바일 인터넷 시장 활성화 위해 3대 목표 추진

정부가 마련한 무선 인터넷 활성화 대책은 이 같은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통위의 '무선 인터넷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3년까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무선 인터넷 강국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즉, 2009년에 비해 2013년에는 △모바일 인터넷 정액 이용자 비중을 10.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늘리고 △스마트폰 보급률을 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하며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시장 규모를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이용자가 부담 없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개선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에 스마트폰 사용량에 따른 한도 정액제 출시를 유도하고, 다양한 결합상품 출시를 통해 정액요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일반폰, 스마트폰, 넷북 등 모든 단말기로 다양한 통신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요금제를 장려하고, 과금 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둘째, 스마트폰 보급을 확대해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를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아이폰 도입 허용을 기점으로 업계에 고기능 스마트폰뿐 아니라 저가의 보급형 스마트폰 출시를 장려하기로 했다. 2009년 말 현재 국내에 보급된 스마트폰은 1백만 대 정도. 방통위의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2013년에는 약 4백만 대의 스마트폰이 보급될 전망이다.

조영철 기자

정부는 2013년까지 스마트폰 보급률을 현재 5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사진은 아이폰을 취급하는 서울 영등포 에이샵 타임스퀘어점.

셋째, 이용자가 파일을 PC에서 휴대전화로 데이터 케이블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사이드 로딩(Side Loading)을 허용했다. 사이드 로딩이란 휴대전화 이용자가 음원, 게임, 동영상 등 휴대전화용 파일을 데이터 케이블을 통해 PC에서 휴대전화로 전송해 자유로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이드 로딩이 가능해지면 콘텐츠 공급자들은 이동통신사에 종속되지 않고 콘텐츠를 판매해 수익을 다변화할 수 있고, 이용자도 데이터 통화료 없이 내려받을 수 있어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넷째, 국내외 콘텐츠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이 어렵게 개발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국내 이동통신사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수익배분 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를 해외로 판매할 때 복잡한 거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국내 콘텐츠 해외 판매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이동 중에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무선 광대역 인터넷망)를 확대한다. 최근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수십만원대 '요금 폭탄'을 맞은 것은 대부분 와이파이(무선접속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하는 근거리 통신망)존에서 수신이 약해 3G(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존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무선 인터넷 요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와이브로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무선 인터넷, 무선 랜, 초고속 인터넷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한편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쇼핑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장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예스24, G마켓, 알라딘 등이 아이폰 앱스토어 입점을 준비했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액티브 X 기반 보안 권고' 사항 때문에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았다.

산학연 '모바일산업 아웃룩' 전략팀 운영도

액티브 X는 공인인증서 모듈 및 해킹방지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기술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공인인증서 이용기술 표준'을 마련해 4월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인터넷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2015년 모바일 세계 최강국 달성'을 목표로 올 1월 초부터 모바일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모바일산업 아웃룩' 전략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략팀은 지난 2월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에 '모바일산업 대책반(가칭)'을 신설하고 정책, 단말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5개 분과로 나눠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한다.

3월 19일 지식경제부 주최 '글로벌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스마트폰의 가장 큰 영향력은 모바일산업과 PC산업이 본격 경쟁하는 상황을 촉발한 것"이라며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모바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 이용행태를 토대로 모바일 시장의 중장기 진화 방향을 연구하는 민관 공동 '미래 모바일산업 리서치랩(가칭)'을 만들어 산학연 공동의 즉각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시장이 모바일 테스트베드(시험무대) 기능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2015년에는 글로벌 모바일 최강국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오해석 대통령 정보기술 특별보좌관

"애플 개방성, 국내 업계에 좋은 자극"

"스마트폰 갖고 계세요?"

오해석 대통령 정보기술(IT) 특별보좌관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이었다.

"당연하죠. 제게 필요한 기능을 골라 쓰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 영어사전, 교통정보… 이런 것들입니다. '개인 맞춤형 휴대전화', 이게 바로 스마트폰 아닙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무엇보다 '오프 오피스(Off-Office)'가 가능해졌어요. 덕분에 업무영역이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하철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요."

서울대 응용수학과를 나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오 특보는 지난해 IT업계 요청으로 신설된 특보직을 맡기 전까지 최근 6년간 경원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부회장, 한국정보처리학회 회장, 벤처지원포럼 회장 등을 역임했다.

스마트폰이 촉발한 모바일 혁명의 의미는.

'스마트'란 우리말로 '똑똑한'이란 뜻입니다. 스마트폰 덕분에 '스마트 라이프', 말 그대로 똑똑한 생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애플의 아이패드 출시로 스마트 라이프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개인용 컴퓨터(PC), 인터넷(IP)TV가 연결되고 모바일 영역이 더욱 확산되면서 어디서나 같은 콘텐츠를 즐기는 시대로 갈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만드는 이러한 '오프 오피스' 환경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으로 직장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관련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애플이 만든 아이폰의 가장 큰 역할은 누구에게나 개방돼 진입이 자유로운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도입한 것입니다. 국내에선 과거에 이러한 앱을 개발해도 기존의 이동통신사가 외면해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애플의 이러한 시도는 폐쇄적인 시장에 안주하던 국내 이동통신사에도 좋은 자극이 됐고, 국내 앱 시장 개방에도 촉진제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플랫폼과 앱 같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우선이고 하드웨어는 종속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계 휴대전화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노키아와 더불어 '3강(强)' 구도를 형성해왔으나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빨리 적응해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 독자 플랫폼인 바다(bada)를 개발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국산 소프트웨어들이 국제무대에서 승부를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한 역기능이 우려되진 않는지요.

소프트웨어의 권한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보안마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악성코드 감염이나 모바일 뱅킹 정보 해킹과 같은 위험성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이 절실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존의 음성 중심 이동통신 서비스가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통신비용의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입니다. 요금제는 개인이 취사선택하는 문제지만 정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IT 특보로서 앞으로 하실 일들은 무엇인지요.

지난 2월 발표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에 따라 구성되는 범정부지원단이 이달 중 활동에 들어가면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의 IT 수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이 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IT 교육을 바탕삼아 그들과의 연고를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숨에 IT 수출액이 급증할 것이란 기대보다는 기초를 닦는다는 개념에서 '파이'를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IT자문위원단도 이달 중 활동에 들어갑니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회의 참가자들의 동선을 따라 'IT 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IT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정부의 주력사업인 4대강 살리기에 대한 IT 분야의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각종 구비서류 제출, 'e하나로민원'이 확 줄여드립니다!

e하나로민원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입니다.

민원 신청하러 가기 전에,

잠깐!

e하나로민원을 이용하시면,
구비서류 1건당 5,082원의 비용을 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 2009년 한 해 동안 약 1,647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행정기관, 공공기관, 은행 등을 방문하시기 전에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홈페이지(pr.share.go.kr)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e하나로민원 홍보대사
가수 박현빈

행정기관·공공기관·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82종

주민)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특허)** 특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법무)**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복지/보훈)**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 **자동차/선박)**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선박원부, 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세금)**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분/주택분/토지분), 소득금액증명,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건설업등록증, 공장등록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제2항제3호), 석유판매업등록증, 어업면허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축산업등록증,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부동산)** 지적도, 임야도,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축허가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임대사업자등록증 **외교)**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병무)** 병적증명서 **상훈)** 상훈수여증명서 **노동)**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분에 한함) **보건)**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약사면허증, 방사선사면허증, 안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 단,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정부민원포털(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82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全 행정기관, 58개 공공기관, 16개 시중은행, 1개 교육기관이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기관별·민원사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홈페이지(pr.shar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http://pr.share.go.kr)

백낙청

"분단·결손 국가 현실 인정해야"

'국민통합'이라는 사회적 화두의 물꼬를 트기 위해
보수를 대표하는 안병직(74) 〈시대정신〉 발행인과
진보를 대표하는 백낙청(72) 〈창작과비평〉 편집인이
흔치 않은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숙명여대 박재창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시대정신〉 대담에서
두 학자는 이념적 차이를 넘어 상당한 부분에서
의미있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시대정신〉 2010년 봄호에
실린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국민통합적 인식은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특별대담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 대한민국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

안병직 : 한국 사회의 진로는 1987년의 6·29선언과 1990년 전후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로부터 어슴푸레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그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여러 면에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말고는 달리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다면,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념적 갈등은 그 탈출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백낙청 : 저는 '정통성(Orthodoxy)'이라는 표현보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당한 귀속감을 요구할 만한 '정당성(Legitimacy)'을 갖고 있느냐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다분히 기형적으로 출발을 했는데도 이런저런 곡절을 거쳐 안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1987년 이후에 보니까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달성하고 경제도 계속 발전하는 꽤 멀쩡한 나라가 되었단 말이죠.

물론 결함도 있고 여러 가지 비판과 성찰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 적(籍)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일단 내가 귀속한 국가이고, 이를 전제로 활동해야 된다는 점에 저를 포함한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동시에 분단으로 인한 결손국가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손국가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하고 앞으로는 어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에 대한 현실인식과 남북통일의 전개 방향 |

안병직 :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사회라 그 실상을 잘 모른다 해도 큰 지표만 가지고 봤을 때 자기 내부적 힘만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회입니다. 북한의 계획경제는 생산의욕을 제대로 자극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물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병직

“국가 정당성 동의하고 출발해야”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농민의 개별경영이나 중소상공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민의 개별경영이나 중소상공업의 부활은 자연히 개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상 제대로 된 개혁마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설령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독립적인 정치경제 단위로 묶어두지 않는다면 억제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북한 주민의 주권(主權)은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북한의 재건에 있어서 한국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이 북한을 바로 흡수통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백낙청 : 북한의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이 큰 역할을 하되 흡수통일은 곤란하다는 안 교수의 주장은 저의 남북연합 주장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혁·개방을 통해서건 다른 방법을 통해서건 북한 경제의 독자적 회생은 어렵겠다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개혁·개방이 북한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라 봅니다.

지금 안 교수께서도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되 북한이 독립된 정치 단위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독일식 통일과 다른 방식이고, 저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남북 국가연합입니다.

국가연합이란 것은 두 개의 주권국가가 존속하지만 완전히 분립한 상황은 아니고 둘 사이에 상시적인 조절장치를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장치도 없이 대한민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라 봅니다.

| 대한민국 형성 과정과 역사에 대한 인식 |

안병직 : 1987년 이후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달성한 대한민국을 두고 보면, 대한민국의 형성 과정에 부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식민지적 폐허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초로 하는 헌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대량의 살육을 동반한 민족적 비극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현대사의 전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6·25사변이에요. 6·25사변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 공히 국민군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배경으로서는 경제개발에 있어서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채택했다는 점입

니다. 그리고 1987년의 6·29민주화선언에 있어서는 민주화세력의 공로가 컸습니다. 하여간 한국 현대사의 전개는 매우 복잡한 것이라 산업화나 민주화의 한 측면에서만 보아서는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을 아우르는 국민통합적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백낙청 : 사회통합을 하려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통합된 인식을 가져야 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봐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과 이승만 시대는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정희 씨의 경우는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든가 저항하겠다는 전략이 있었는데, 이승만 씨는 그런 게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1950년대 나름의 성취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한 공로로 돌릴 일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백낙청 편집인, 박재창 교수, 안병직 발행인(사진 왼쪽부터)이
1월 14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시대정신〉 회의실에서 대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강압적이고 대단히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진 채로나마 국가로서의 기틀을 어느 정도 잡은 것은 박정희 시대 들어와서라고 봐요. 이 경우에도 박 대통령 개인과 박정희 시대를 동일시하는 건 경계해야겠지요.

그의 공로 중 하나는 안 교수 말씀대로 대외개방적인 경제전략을 선택했다는 점일 겁니다. 당시 운동권의 주된 입장은 소위 내포적 경제발전론이었는데, 그에 비해 과감하게 수출전략을 쓴 것은, 범박하게 가부를 따진다면 그 시점의 한국으로서는 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과제 |

안병직 : 한국의 선진화정책에 있어서 핵심은 교육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선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물질적 선진화만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의식과 지적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확보하는 직접적 방법이 바로 교육이지요.

그리고 생활로서의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실현이 시급합니다. 다른 하나는 정당의 자율적 운영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대권과 당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누가 정권을 잡든지 당이 완전히 자율성을 갖게 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좀 더 충실히 할 때라고 봅니다. 복지정책은 반드시 사회주의정책이 아니고, 한국 사회가 이미 크게 성숙했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자유를 제약한다거나 국민들의 사회에 대한 의존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사회는 이미 선진국적인 측면이 농후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발전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정치사상의 중심축을 이루고 그 양쪽으로 극우나 극좌도 포진하는 사상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사회 구성원의 일부를 국민에서 배제하려는 반공주의나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종북주의는 극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낙청 : 교육의 중요성이라든가,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든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해야 한다든가, 복지국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라든가, 사상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자는 말씀 또한 저로서도 아주 공감하는 얘기들입니다.

저는 시민사회가 참여할 여지와 공간이 생기는 과정이 우리의 국내 개혁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또한 지방자치란 것이 단순히 정치나 행정적인 권한을 분권화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는 '일극 체제에서 패배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구원 수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방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영원한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만 봐야 하나요? 그런 게 진정한 선진사회는 아닐 겁니다. 제대로 된 선진사회는 지방이 독자적으로 세계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고 유대를 맺고, 그래서 수도권이 대체할 수 없는 독자적인 경제권, 생활권을 이룬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지방 살리기라는 게 지방이 중앙에서 하나를 더 얻어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방은 지방대로 별도의 세계화, 지역화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점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G

정리 및 사진 · 박영화(시대정신 편집장)

북극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기후변화협약대책 Week' 3월 23일부터 국제 심포지엄

기후변화는 비단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북극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인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지구촌 공동의 과제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해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마련된 것이 '기후변화협약대책 Week'다.

지식경제부는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제5차 기후변화협약대책 Week' 행사를 연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해왔다. 특히 올해 행사를 기후변화협약 발효일(1994년 3월 21일)을 고려해 여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연구소 등 관련 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큰 틀 안에서 매일 다른 주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동아DB

'기후변화협약대책 Week'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 국제 심포지엄·온실가스 세미나 열려

사실상 행사 첫날인 3월 23일은 대국민 홍보가 핵심. 오전에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이후의 온실가스 국제협상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오후에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MBC는 '이제는 탄소다!'라는 특별 생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탄소 줄이기 실천방법, 탄소중립,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한 이 프로그램은 탄소캐시백 홍보 이벤트와 함께 이원 생중계된다. 탄소캐시백 홍보 이벤트는 캐시백 마크와 모형 돈을 이용해 '탄소를 잡으면 돈이 된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행사.

이튿날인 24일에는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국내외 배출권 거래제도의 동향과 해외 거래 사례를 소개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2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설명회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총괄 시스템인 '온실가스 인벤토리'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어 행사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한·개도국 CDM 프로젝트 투자설명회'가 열린다. CDM(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서 달성한 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투자 설명회에서는 한국기업의 해외 CDM 참여 사례와 중국, 몽골의 유망 CDM 프로젝트가 소개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나승식 기후변화정책과 과장은 "이번 기후변화 대책 Week 행사는 산업계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간의 추진 성과를 널리 알려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G 글·김지영 기자

일시	주제	시간	행사명
3.23(화)	홍보	10:00~12:00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이후 전망 발표
		14:00~17:00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세미나
		17:00~18:30	MBC 특별생방송 (이제는 탄소다!)
			탄소캐시백 홍보 이벤트 · 탄소 잡으면 돈이 됩니다!
3.24(수)	배출권 거래	10:00~18:00	배출권 거래제 국제 심포지엄 · 세션1 : 국내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동향 · 세션2 : 탄소배출권 거래 해외 사례
3.25(목)	목표 관리제	10:00~12:00	기업의 에너지목표관리제 대응 방안 설명회
		14:00~17:30	온실가스 인벤토리 세미나
3.26(금)	CDM사업	10:00~17:30	한·개도국 CDM 프로젝트 투자설명회

한식에 푹~ 빠진 프랑스 선생님

아리랑TV 진행자 벤자민 주아누

파란 눈의 외국인 입에서 '비빔밥' '된장찌개' 같은 한식 메뉴가 줄줄 나온다. 그는 강원도의 작은 식당에서 먹은 소박한 밥상을 잊지 못한다. 아리랑TV 한식 소개 프로그램 진행자 벤자민 주아누 씨의 특별한 '한식 사랑' 얘기를 들었다.

벤자민 주아누 씨는 유창한 한국어로 "한식 세계화를 위해선 한국인의 정체성이 담긴 음식들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자민 주아누(41) 씨는 최근 맛본 강원도 홍천의 된장찌개 얘기를 하면서 입맛을 다셨다. 프랑스인인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아리랑TV 〈Tasty Trail with Benjamin〉(벤자민과 함께하는 맛있는 여행)이라는 한식 소개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답답한 스튜디오를 박차고 나가자'는 이 프로의 제작 의도에는 "한식의 민얼굴은 지방에 있다"는 벤자민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 해인사에서는 김장을 했고, 전주에서는 전통 비빔밥을, 강릉에서는 초당두부를 맛봤다. 그가 꼽은 최고의 밥상은 강원도의 작은 식당에서 나왔다.

"작은 상 위에 된장찌개, 쌀밥, 나물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죠. 단출했지만 입에 넣자마자 불꽃이 튀던데요. 너무 맛있어서요. 요즘 '한식의 세계화'라고 하면 팬시한 퓨전 한식을 흔히 떠올리는데, '진짜'는 기본에 충실한 소박한 밥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전국을 돌아다닌 그는 인공조미료의 위력을 실감했다. 인공조미료가 든 음식을 먹고 나면 20분 내에 두통이 밀려오는 '특이 체질' 탓에 인공조미료를 안 쓰는 식당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기본에 충실한 소박한 음식이 한식 세계화 이끌 것"

그는 파리사회과학대학원에서 인류학 박사과정을 밟던 중 군 복무차 해외파견교사를 선택해 1994년 한국에 오게 됐다. 홍익대에서 5년간 프랑스어를 가르쳤다. '이제 귀국할까' 망설이던 그는 한국인 친구와 함께 이태원에 '르생텍스'라는 프랑스 음식점을 열고 프랑스 음식을 한국인에게 소개하는 동시에 한국음식을 본격적으로 찾아 먹기 시작했다. 김치는 물론 간장, 된장, 고추장도 직접 담그고 산나물을 캐서 장아찌까지 해 먹으면서 '한식광'이 돼버린 것. 하지만 그도 처음에는 한식에 대한 호감보다 거부감이 컸다.

"처음 2, 3개월 적응한답시고 과식했더니 결국 탈이 나서 한동안 한식을 끊었어요. 문제는 당시 한국에 외국 음식 먹을 곳이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굶을 수는 없으니까 한식을 다시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밥이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그는 "'한식의 세계화'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만족할 한식을 내놓겠다는 것은 과욕이고 시간을 갖고 전통 한식으로 외국인 입맛을 길들이는 '정공법'을 택하라는 것이다.

"얼마 전에 어떤 한식연구원에서 '한식은 반찬이 많은 게 흠이니 일품요리로 승부를 보자'고 주장해 놀랐어요. 반찬 없는 한식을 상상할 수 있나요? 한국의 혼이 없는 요리가 한식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맛보이겠다'는 고집, 배짱이 필요해요."

그는 올해 한식의 세계화를 주제로 책도 낼 계획이다. 한국음식과 서양음식의 전통을 비교하고 세계 속 한식의 현실을 조명하는 책이다. 1998년 프랑스에 문을 연 한국 전문 출판사 운영에도 더 본격적으로 나설 작정이라고 한다.

"친한파 프랑스 친구 5명과 출판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12권을 프랑스어로 번역해 출간했어요. 한국 가이드와 잡지도 만들고 있죠.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유럽인들은 늘어나는데 볼 만한 책이 없거든요."

주아누 씨는 유창한 한국어로 "아직은 책이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다 '정'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웃었다. G

글 · 김남인(조선일보 사람들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세계김치연구소 박완수 소장은 "김치의 품질 향상과 세계화를 위해 맛의 근본부터 다시 연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세계김치연구소장 박완수

"발효기술 정복으로 김치 세계화"

3월 10일 세계김치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한국 식품의 자부심인 김치 한 가지만 연구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세계김치연구소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일단 경기 성남시 분당의 연구원 안에 들어선 뒤 올해 말에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으로 자리를 옮길 계획이다.

김치연구소 건립은 2008년 4월 국무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이 "발효식품 연구소 건립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후부터 발 빠르게 추진돼왔다. 연구소가 들어설 임암동에는 현재 김치 전시관, 체험관 등을 갖춘 광주김치센터도 건립 중이다.

박완수(54) 초대 소장은 "국내 김치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연구소의 목표"라고 밝혔다.

"세균학부터 공장설비·유통구조까지 연구할 것"

박 소장은 앞으로 김치 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효기술, 특히 세균학이라고 강조했다. 맛의 본질에 접근해야 상품화가 가능하다는 것. 발효식품인 김치는 세균이 맛과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친다. 김치 안에 사는 세균의 종류와 수는 김치의 종류와 재료, 주위 환경에 따라 제각각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세균의 종류도 수백 종 이상. 연구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세균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세균들의 공생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김치 맛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된다고 한다.

김치를 세계시장에 내놓기 위해선 공장설비와 위생 확보, 유통구조 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재료의 세척, 절임, 양념 제조 등 모든 과정이 서양식 식품생산 과정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모든 것을 새롭게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처럼 많은 숙제 가운데 박 소장은 먼저 '종균김치' 기술부터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술은 발효 과정에서 세균을 인위적으로 넣어 김치 맛을 조절하는 것. 이미 일부 큰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 박 소장은 3년 안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치연구소는 앞으로 발효, 미생물 등의 기초지식을 연구하는 제1 연구본부와 산업화 공정 등을 연구하는 제2 연구본부로 나눠 맛과 생산기술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25명의 전문연구원 중 9명은 한국식품연구원 내부에서 선발하고 16명은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박 소장은 "김치를 세계화하려면 먼저 맛을 좌우하는 기술부터 손에 넣어야 한다"며 "김치를 미국시장에 수출할 때는 매운맛과 신맛을 적게, 일본시장에 수출할 때는 단맛을 높게 하는 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굳이 한국식 입맛으로 바꾸지 않고도 스테이크 접시 한쪽에 김치를 스스럼없이 올릴 수 있어야 김치가 세계화된다는 것.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맛의 근본부터 다시 연구하겠다는 박 소장과 세계김치연구소의 선전을 기대해본다. G

글 · 전승민(동아사이언스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일반 학교 영어선생님 된 1급 시각장애인 김헌용

“교과서 통째 외워 수업… 자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1급 시각장애인이 일반 중학교 교사로 부임했다. 김헌용 씨는 다섯 살 때 시력을 잃었지만 남다른 노력으로 영어공인인증시험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 교사가 되겠다는 오랜 꿈을 현실로 이뤄냈다.

김헌용 씨는 손에 든 흰 지팡이만 아니라면 1급 시각장애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밝고 씩씩하다.

교문 앞에 도착해 전화를 하자 몇 분 후 운동장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그가 보였다. 손에 든 지팡이만 아니었다면 사물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1급 시각장애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똑바로 걸어왔다.

거침없는 일직선 행보. 그의 삶도 그래왔다. 일반인과 똑같이 경쟁하며 공부했고, 교사 임용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제 그는 일반 학교에 교사로 부임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 영어담당 김헌용(24) 교사. 시각장애인으로 특수교육과가 아닌 일반 교과 교사가 된 것은 서울시에서 그가 처음이다. 전국 1호 시각장애인 일반 교사는 2007년 충남교육청에서 임용된 최유림(27) 교사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 낯선 환경을 접하면 일반인보다 적응 시간이 더 걸리게 마련이지만, 이제 1층 교무실부터 건물 반대편 4층 시청각실까지 혼자 찾아갈 만큼 학교 건물도 익혔다. 은평구의 집에서 잠원동 학교까지도 혼자 지하철로 출퇴근한다.

“학교의 배려로 각 교실을 찾아다니는 대신 시청각실에서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가 함께 들어와 교재 배포 등을 도와주시고요. 칠판에 판서를 하지 않고 컴퓨터로 교재를 준비해서 빔 프로젝트로 쏘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가르치고 있지요.”

교과서 내용에서 그림까지 통째 외워 수업

물론 수업 준비는 쉽지 않다. 교재를 파악하는 일부터 그렇다. 김 교사는 문서를 음성으로 전환해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교과서에 실린 문장을 쪽수와 함께 모두 암기했다. 시각장애 사회복지관의 도움으로 교재에 실린 그림의 설명까지 모두 컴퓨터에 입력해 외워뒀다. 김 교사의 성실한 수업 준비와 영어 실력에 감탄한 학생들의 반응은 뜨겁다.

그는 1991년 다섯 살 때 정확히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오른쪽 눈부터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어딘가에 부딪힌 충격 때문인 것으로 짐작한다. 교사였던 아버지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아들의 손을 잡고 독일까지 날아가 치료

> 시각장애인은 일반 학생을 '못 가르치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지 '가르쳐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 편견을 깰 것입니다.

김헌용 씨는 책을 음성으로 녹음해 통째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해 미국 컬럼비아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연수도 다녀왔고, 영어공인인증시험에서도 토익 9백75점, 텝스 9백18점을 받았다.

를 시도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이미 책을 읽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결국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서울 신교동의 국립맹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학교 근처로 집을 옮겼다. 그래도 그때까진 사물을 구분할 정도는 됐기에 혼자 걸어서 등교했으나 남아 있던 시력마저 점차 잃게 됐다. 그는 "워낙 어려서 실명을 한 탓인지, 시각장애가 그리 큰 역경으로 여겨지진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리고 싶을 만큼 절망했다. 그런 그에게 살아갈 힘을 불러일으켜준 것은 영어 공부였다.

"중학교 때 영어를 가르치신 담임선생님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영어에 빠져들게 됐어요. 영국 축구팀을 좋아해서 BBC 방송으로 축구 중계를 즐겨 들은 것도 영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됐고요."

그는 남들이 보기엔 불리한 자신의 조건이 영어를 공부하는 데는 오히려 약이 됐다고 생각한다. 맹학교의 특성상 한 반의 학생 수가 열 명 이하였기에 선생님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고, 다른 과목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영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영어를 좋아하게 만들어준 담임선생님은 이후 교직을 그만뒀지만, 지금도 그와 수시로 연락하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때로는 우수한 실력의 자원봉사 교사들이 방문해 일대일로 영어 과외도 해주셨지요. 그래서 학원을 따로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아마 제가 맹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웬만한 고액과외나 유명학원보다 훨씬 알찼을 겁니다."

웃으며 말하는 김 교사에게서 장애라는 조건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여긴 낙관과 긍정이 배어났다. 훌륭한 선생님들을 접하며 교사의 꿈을 키우게 된 그는 2006년 충남 국립공주대 사범대 특수교육과에 입학해 부전공으로 영어교육을 택했다.

"영어 공부에 필요한 교재는 점자책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일반 서적을 점자로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교재를 음성으로 녹음해 외우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녹음작업을 공주대 사대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2004년과 2006년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미국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렇게 매진한 결과 그는 영어공인인증시험에서 토익(TOEIC) 9백75점, 텝스(TEPS) 9백18점을 받았다. 특수학교 교사가 아닌 일반 교원 임용에 도전할 욕심이 생겼다. 대학 4학년 때 공주사대 부속 중학교에서 한 교생실습은 시각장애인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닫게 해준 동시에, 교사로서의 꿈을 더욱 확고히 다진 계기였다. 중등교사 임용시험도 교재를 음성으로 녹음해 통째로 외우는 방식으로 준비했다.

"주변의 우려를 모르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요.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일반 학생을 '못 가르치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지 '가르쳐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 편견을 깰 것입니다."

"아이들이 믿을 수 있는 선생님 될 것"

학생들은 교사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열정과 관심을 갖고 가르치는지, 주변에서 지켜보는 어른들보다 훨씬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그는 믿는다. 교사가 열정을 갖고 노력하면 아이들은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한다.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 될 것을. 아이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상담 공부도 시작할 계획이다.

"어쩌면 학생들에게는 시각장애인 선생님에게서 수업을 받아본 경험 자체가 훗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작으나마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직접 슬라이드 교재를 준비하고, 교과서를 그림 내용까지 통째로 외워서 설명하는 선생님의 모습. 그런 선생님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학생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기 힘든 값진 배움을 얻고 있지 않을까. G

글 · 김정희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과학고 입시가 달라졌어요

자격증 배제… 창의성에 초점

동아DB

올해부터 과학고 입시에서 각종 경시대회와 인증시험 성적이 배제되고,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학습 전형이 확대된다. 한성과학고에서 학생들이 과학실험을 하고 있다.

2011학년도부터 과학고 입시가 크게 달라진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올해 과학고 입시는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과학캠프를 통한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한다. 교과 지식을 묻는 필기고사와 구술면접, 적성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또 올림피아드 등 경시대회와 각종 인증시험, 자격증 등은 전형에서 배제한다.

전국 19개 과학고의 모집 인원 1천5백20명 가운데 31퍼센트인 4백75명은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선발한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관찰한 결과를 고려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1단계에서 중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습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사정관이 2, 3개월간 자료 내용을 검증해 면접 대상자를 확정한다. 2단계에서는 제출 서류와 입학사정관의 활동 결과 자료를 토대로 자기주도학습 및 계획, 봉사 및 체험활동, 독서활동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결과와 내신 성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인증시험 등 사교육 유발 요인 배제

자기주도학습 전형 선발자를 제외한 나머지 1천45명은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뽑는다. 중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1박2일 이상의 과학캠프를 실시해 캠프 결과와 내신 성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과학고는 중학교장의 추천자 중 과학캠프에 참여할 대상자를 확정하고, 캠프 참여 학생에 대해 심층관찰, 면담, 평가 등을 실시해 창의성과 문제 발견능력 및 해결력, 과제 수행능력 등을 측정한다. 과학캠프의 평가 도구는 평가 내용과 방법에 대한 매트릭스를 활용해 다양하게 선택, 응용해서 사용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진규 창의인재육성과장은 "평가 도구를 전국 과학고마다 다르게 하고, 같은 학교에서도 매년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 운영함으로써 사교육에 의한 사전 준비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문항은 중학교 수준에서 개발하고, 전형이 끝나면 모두 공개해 과학고 진학이나 수학,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학고 입시 전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교육 유발 요인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등은 모두 배제되며 교과 지식을 묻는 시험도 금지된다.

한성과학고 유형선 입학사정관은 "학교 밖의 활동을 배제함으로써 교내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가 중요한 전형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과학고 입시 전형은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에는 정원의 50퍼센트 이상을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선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위해 지난해 8월 과학고별로 2, 3명씩 총 39명의 전임 입학사정관에 대해 카이스트에서 6개월간 6백 시간의 전문 연수를 실시했다.

전임 입학사정관들은 3월부터 자기주도학습 전형 전까지 사전 활동을 하게 된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이 도입되는 첫 해인 만큼 모집 지역 내 중학교에 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분석해 향후 전형 기간 중에 활용할 예정이다. 각 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수학과 과학 교육, 창의성 교육, 과학 탐구활동, 체험활동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 해당 중학교 출신 과학고 재학생과 졸업생 분석 등이 포함된다.

또 전형 기간에는 전임 입학사정관 외에도 카이스트에서 30~60시간의 집중 연수를 마친 위촉사정관이 활동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방학 등을 활용해 입학사정관 연수를 실시해 과학고 입학 전형에 필요한 위촉사정관을 계속 양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이혜련 기자

이름은 달라도 병은 하나

10개 소주업체 CO_2 6만9천 톤 절감

이제 소주 이름은 달라도 소주병의 모양은 똑같아진다. 국내 소주업체 10개사는 빈 소주병의 재활용률을 높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가장 흔한 3백60밀리리터 소주병의 형태를 공용화하기로 협약했다.

국내 10개 소주업체가 같은 모양의 소주병을 사용하면 빈 병 재활용 횟수가 4배로 껑충 뛴다.

'빈 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굴러다닌다….' (공광규의 시 '소주병'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한 해 약 30억 병의 소주병이 유통된다. 이 중 19퍼센트가 새로 생산된 소주병이다. 빈 병의 재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는데도 새 병을 생산하는 이유는 회수한 빈 병의 색상과 모양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3백60밀리리터 소주병의 경우 국내 모든 소주업체가 같은 형태를 사용해 재활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7개 소주사와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 3월 4일 3개사와 추가로 협약을 맺었다. 국내 소주업체 10개사가 모두 참여한 것이다.

지난해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진로, 대선주조, 롯데주류BG, 선양, 충북소주, 하이트주조, 한라산이며 이번에 금복주, 무학, 보해양조가 참여해 전국적인 소주병 공용화를 실현하게 됐다. 소주병 공용화 협약 대상 소주병은 3백60밀리리터 용량으로 소주업체가 생산하는 소주병의 96퍼센트를 차지한다.

> **약 30억 병을 모두 공용화병으로 교체하면 빈 병의 회수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줄고, 재사용 횟수는 평균 5회에서 20회로 는다. 이를 통해 연간 2억5천만 개의 소주병 생산을 줄일 수 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3백29억원어치다.**

재활용률 높이고 회수기간 줄여 329억원 경제적 이득

이 협약에 따라 각 제조사에서 공용화병을 출시해 1, 2년 내에 기존의 약 30억 병을 모두 공용화병으로 교체하면 빈 병 재활용률과 경제적 이득이 커진다. 즉 빈 병의 회수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짧아지고, 재사용 횟수가 평균 5회에서 20회로 껑충 뛴다.

이를 통해 연간 2억5천만개의 소주병 생산을 줄일 수 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3백29억원어치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기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만9천톤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년 된 잣나무 1천50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는 게 환경부의 추산이다.

환경부는 소주업계와 한국용기순환협회가 구성한 공병관리 위원회를 통해 협약 내용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해 소주병 공용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 소주업계는 고질적인 빈 병 회수 경쟁, 타사 빈 병 무단 사용 등으로 불신의 벽이 높았다. 또 회수한 소주병을 회사별로 분류해 재활용하는 데 드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비용도 추가됐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이정미 사무관은 "공용화 협약에 따라 업체 간 신뢰 회복과 원가 절감효과도 기대된다"며 "당분간 소주병에 양각된 제조회사명과 제품 라벨에 표시된 제조사명이 다를 수 있는데, 이는 공용화의 과도기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4대강 살리기
제 45 화
글·이연수 그림·이호

날씨 좋~다!
꽃샘추위가 하도 심술궂어서 봄이 영영 안 올 줄 알았는데….

소영아! 그거 알아? 강원도에서는 올해 개나리가 파란색으로 핀대!
정말? 왜?

봄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개나리 나무가 파랗게 얼었거든!
우 하하
재밌지?
썰렁해….
오 싹

아 참! 당신 차 세워두는 강변 주차장 없어진대!
뭐! 정말이야? 왜?

시멘트로 덮인 강변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수질관리에도 좋지 않거든.

게다가 거기 차 세워두는 게 안전하지도 않잖아. 지난 번 장마 때 거기 세워둔 차들 다 못쓰게 됐던 거 생각나지?
하긴 그때 우리 차도 하마터면 물에 잠길 뻔했지.

그럼 주차장 자리는?
생태습지로 꾸밀거래.

그렇군! 강의 생태계를 복원한다면 기꺼이 협조해야지!

그럼 나도 내일부터 자전거로 출근해볼까?
어머! 정말?

자전거로 나의 초콜릿 복근도 완벽하게 가다듬고 탄소배출도 줄이고!
후 훗!
초콜릿 복근?

그런 의미에서 지난 번에 봐둔 그 산악자전거, 장기할부로 어떻게 안 될까?
내 그 소리 나올 줄 알았어!
하하

흐드러진 꽃구경 “봄이 왔네”

고궁·왕릉 봄꽃 향연… 5월까지 이어져

바야흐로 봄이다. 찬 바람에 뭇매 맞아 앙상하던 가지에 파릇파릇 새순이 돋는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반기듯, 겨우내 움츠렸던 형형색색 꽃들이 봉오리 사이를 비집고 나올 날도 머지않았다. 우아한 자태와 은은한 향기로 가슴 설레게 만드는 봄꽃의 정취, 과연 언제쯤 만끽할 수 있을까.

최근 문화재청은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인 고궁과 왕릉의 봄꽃 개화 예정 시기를 발표했다. 궁궐의 봄꽃 중에서는 창덕궁 관람지와 창경궁 경춘전 뒤편 화계(花階)의 생강나무가 가장 먼저 개화해 봄을 알린다. 곧이어 경복궁 흥례문과 창덕궁 낙선재의 매화, 경복궁 경회루지와 덕수궁 대한문의 벚나무, 경복궁 자경전의 살구나무, 경복궁 아미산과 창덕궁 대조전의 앵두나무, 덕수궁 함녕전의 모란 등이 5월까지 차례로 꽃을 피운다.

왕릉에서도 봄꽃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세종대왕릉과 융릉·건릉 산책길에서는 진달래, 서오릉과 선릉·정릉 산책길에선 벚꽃을 볼 수 있으며 그 외의 조선왕릉 곳곳에서 산철쭉, 산수유, 복수초, 금낭화 등이 피어난다.

봄꽃의 개화는 기온, 일조시간, 강수량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화 직전의 날씨 변화에 따라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방문 전에 개화 시기의 변동 여부, 궁궐이나 왕릉의 위치, 교통편, 관람일 등 상세사항을 각 궁·능·유적관리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G

글 · 김지영 기자

봄꽃 개화 예상 시기

	장소	수종	시기
경복궁 02-3700-3900	아미산	앵두나무	3.31~4.25
	흥례문 어구	매실나무	3.20~4. 5
	자경전 주변	살구나무	3.31~4.15
	경회루지 주변	수양벚나무	4. 6~4.20
창덕궁 02-762-9513	관람지 주변	생강나무	3.17~3.27
	낙선재 주변	매실나무	3.20~4. 5
	대조전 화계	앵두나무	3.31~4.25
	삼삼와 앞	수양벚나무	4. 6~4.20
	희정당 앞	산철쭉	5. 5~5.20
	낙선재 화계	모란	5.10~5.30
창경궁 02-762-9515	옥천교 어구	매실나무	3.20~4. 5
	경춘전 화계	앵두나무	3.31~4.25
		생강나무	3.17~3.27
	홍화문	산철쭉	5. 5~5.20
	옥천교 어구, 환경전 주변	살구나무	3.31~4.15
덕수궁 02-771-9952	대한문	산벚나무	4. 6~4.20
	석어당 앞	살구나무	3.31~4.15
	석조전 뒤 오솔길	산철쭉	5. 5~5.20
	함녕전 뒤	모란	5.10~5.30

창경궁 옥천교 주변에 흐드러지게 핀 매화.
봄꽃은 개화 후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므로 그 사이에 고궁이나 왕릉을
방문하면 봄꽃의 자태와 향기를 즐길 수 있다.

누리령 산봉우리
나그네 눈물로 젖어 있네

다산초당 아래에 있는 '뿌리의 길'. 정호승 시인이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삼남대로는 조선시대에 한양과 팔도를 잇는 9대 교통로 가운데 하나였다. 충청도와 전라도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온 삼남대로는 남해 바다를 건너 제주도까지 이어졌다. 한양에서 제주도까지 가려면 숭례문을 출발해 과천, 천안, 공주, 삼례, 정읍, 노령, 장성, 나주, 영암, 강진, 해남 등을 두루 거친 후에 해남 이진포(지금의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의 조천포로 건너가야 했다. 강진 땅을 향해 기약 없는 유뱃길에 오른 다산 정약용(1762~1836)의 노정(路程)도 바로 이 삼남대로를 따라 이어졌다.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저서를 남긴 학자이자 조선 후기의 개혁사상가인 다산은 천주교를 탄압한 신유박해(1801년)에 연루돼 경상도의 장기현(지금의 포항시 남구 장기면)으로 유배됐다. 신유박해 당시에 목숨을 잃은 사람만도 2백여 명에 이르렀다. 다산의 매형인 이승훈과 셋째형 정약종, 이승훈의 외숙부인 이가환 등도 참형을 당했고 다산과 둘째형 약전은 유배형을 받아 겨우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다산은 조카사위 황사영의 백서사건으로 강진으로 다시 유배지가 옮겨졌다.

한양을 출발해 함께 삼남대로를 지나온 정약전, 약용 형제는 나주의 반남정 주막거리에서 헤어져 각자의 유배지로 향했다. 멀리 흑산도로 떠나는 형 약전과 이승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낸 다산은 동짓달 삭풍 속에서 월출산 누릿재를 넘어 강진 땅에 들어섰다. 18년 동안의 기나긴 유배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누릿재를 넘을 때의 소회를 그는 '탐진촌요(耽津村謠)'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누리령의 산봉우리 바위가 우뚝우뚝
나그네 뿌린 눈물로 언제나 젖어 있네
월남리로 고개 돌려 월출산을 보지 말게
봉우리 봉우리마다 어쩌면 그리도 도봉산 같아

다산이 강진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주민들은 '대역죄'를 짓고 귀양 온 선비를 몹시 경계했다고 한다. 그런 다산에게 호의와 인정을 베푼 사람은 동문 밖의 주막집 노파와 그의 외동딸이었다. 노파에게서 작은 방 한 칸을 얻은 다산은 '생각, 용모, 언어, 행동을 마땅히 바르게 해야 할 방'이라는 뜻에서 당호(堂號)를 사의재(四宜齋)라 짓고 꼬박 4년을 그곳에서 지냈다.

다산은 사의재에 머무는 동안 백련사의 학승(學僧)인 혜장(1772~1811)과 깊이 교분을 나누는 한편, 아들 학연을 불러와 직접 학문을 가르치기도 했다. 1805년 겨울부터는 강진읍내 뒷산의 보은산방에 머물며 주역을 연구했다. 이듬해 가을부터는 탐진강 하구의 목리마을에 있는 제자 이학래의 집에서 기거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도암면 귤동마을에 위치한, 해남 윤씨의 산정(山亭)이었던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겼다. 귀양을 온 지 8년째 되던 1808년 봄의 일이었다. 해남 윤씨 가문의

정약용의 남도 유뱃길 4코스의 종점인 영암 구림마을의 상대포.
백제 때에 왕인 박사가 배를 타고 일본으로 떠난 곳이다.

수많은 서적들은 다산이 유배지에서 수많은 저술을 남기고 학문을 완성시킨 밑거름이 됐다.

총길이가 61.5킬로미터에 이르는 '정약용의 남도 유뱃길'은 크게 4개 코스로 나뉜다. 전 코스를 섭렵하면, 사색과 명상에 잠기는 오솔길·갯길, 솔향기에 취해 시인이 되는 산길·논밭길, 그리움과 설렘에 가슴 저리는 옛길·목장길, 맑은 바람과 맥반석에 기가 충만하는 과수원길·개울물길,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시장길·돌담길·골목길 등을 두루 거치면서 남도 특유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맘때쯤의 봄날에 딱 한 코스만 걸어보고 싶다면 울창한 동백숲과 파릇한 보리밭을 끼고 가는 1코스가 제격이다.

18년 기나긴 유배생활 담긴 길… 4개 코스로 나눠

1코스의 출발지는 근래 지어진 다산수련원이다. 다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전시돼 있는 다산유물전시관(061-430-3782)과 인접해 있고, 깔끔한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다산 유적지 답사여행의 베이스캠프나 다름없다. 다산수련원에서 다산초당까지의 거리는 6백 미터 정도에 불과하다. 한달음에 달려갈 수 있을 만큼 짧은 길이지만 두충나무숲길, 솔숲길, 대나무숲길, '뿌리의 길' 등 다양한 느낌의 길을 지나야만 다산초당에 당도하게 된다.

다산이 10여 년 동안 머문 다산초당은 애초에 허름한 초가였다. 그러나 1957년에 복원되면서 번듯한 와당(瓦堂)으로 바뀌었다. 1974년에는 다산의 처소였던 동암과 제자들이 거처했던 서암도 복원됐고, 애초엔 없었던 천일각도 나중에 세워졌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산 생전의 것에 비해 더 커지거나 아예 없었던 것들이다.

하지만 초당 옆의 아담한 연못과 그 한가운데의 석가산, 초당 뒤편의 돌 틈에서 솟아나는 약천(藥泉), 솔방울을 태워 찻물을 끓이던 바위인 다조(茶竈), 해배(解配·귀양이 풀림)를 앞두고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집 뒤편의 암벽에 다산이 손수 쓰고 새겼다는 '정석'(丁石)이라는 두 글자 등은 다산의 정성과 손

때가 묻어 있는 자취들이다. 또한 천일각이 세워진 자리는 다산이 흑산도로 유배 간 형을 그리며 강진만을 굽어보던 곳이다. 지금도 이곳에 서면 강진만의 평화롭고 아늑한 풍광과 그 건너편에 우뚝한 천관산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조망이 시원스럽다.

다산초당과 백련사 사이에는 만덕산의 산허리를 가로지르는 오솔길이 나 있다. 다산과 백련사의 혜장 스님이 서로 오가며 정을 나누고 학문을 논하던 '우정의 길'이다. 그러니 이 길은 역사유적이나 다름없다.

키 작은 수목들 사이로 강진만 바다가 언뜻언뜻 보이는 오솔길을 따라서 만덕산의 산허리를 20여 분쯤 걸으면 '백련사 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 제151호)에 들어선다. 총면적이 1만2천8백93제곱미터인 이 숲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백숲의 하나로 손꼽힌다. 1천5백여 그루의 수백 년 묵은 동백나무 고목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동백꽃 만발하는 춘삼월이면, 동백숲에 홀로 선 부도와 목이 부러지듯 뚝뚝 떨어져 뒹구는 동백 낙화의 조화가 섬뜩하리만치 아름답다. 또한 핏빛보다 더 붉게 핀 동백꽃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강진만 바다 풍광은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을 장관이다.

백련사와 동백나무숲을 품은 만덕산은 해발 4백8미터의 작은 산이다. 하지만 산정에는 울퉁불퉁한 암봉이 연이어져 산세가 제법 우람하고 험준하다. 게다가 야생 차나무가 많아서 '다산'(茶山)으로도 불린다. 정약용 선생의 아호 다산도 거기서 따왔다고 한다.

만덕산 중턱에 자리한 백련사는 통일신라 때인 839년에 창건됐지만, 오늘날의 건물들은 모두 조선 후기에 중창됐거나 근래 새로 지어진 것들이어서 고풍스러운 멋은 없다. 그래도 동백숲이 좋고, 배롱나무 고목이 늠름하며, 바다 전망이 탁월해서 사시사철 어느 때에 찾아가도 기분이 상쾌해지는 절집이다.

복원된 '사의재' 들르면 메밀묵·동동주… 옛 정취 물씬

백련사 동백숲을 지나온 뒤로는 한동안 지루하고 딱딱한 포장도로를 걸어야 한다. 강진만 갯벌의 철새 도래지를 관찰하기 좋은 탐조 지점을 지나고, 덕남리의 제방길에 들어서야 비로소 발바닥이 편해지는 흙길을 다시 만난다. 덕남리 제방길은 길고도 지루하다. 약 3.4킬로미터에 이르는 길의 풍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왼쪽에는 탐진강 하구와 갯벌, 오른쪽에는 파릇

탐진강 하구에 위치한 목리마을 포구. 다산은 이 마을의 제자 이학래의 집에서 잠깐 머물렀다.

한 보리밭이 펼쳐지고, 앞쪽에는 강진읍내가 아스라이 보인다. 게다가 사방으로 훤히 트여 있어서 소소리바람 부는 봄날이나 햇살 뜨거운 여름철에는 걷기가 만만치 않을 성싶다. 고속국도처럼 반듯한 제방길이 끝나는 곳에서 만나는 남포마을을 지나면 다산이 한때 머물렀던 목리마을이 지척이다. 목리마을부터 강진읍내의 사의재와 영랑 생가까지는 시골 소읍의 소박하고 정겨운 골목길이 이어진다.

사의재는 근래 복원된 건물인데도 퍽 예스럽다. 더군다나 시장한 길손들에게 비빔밥, 메밀묵, 파전, 동동주 등을 파는 실제 주막을 겸하고 있어 옛 정취가 가득하다. 사의재에서 경찰서, 군청 등의 관공서들이 몰려 있는 길을 따라 10분쯤 걸으면 영랑 생가 입구에 당도한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으로 유명한 시인인 영랑 김윤식(1903~1950)은 여전히 단정하고 고요했다. 집 뒤란의 커다란 동백나무는 핏빛보다 더 붉은 꽃부리를 가득 뿌려두고 있었다. 하지만 내내 다산의 자취를 더듬다가 문득 들어선 영랑의 옛집은 낯설게 느껴졌다. 모란꽃 만발한 5월의 풍성한 풍경을 떠올리며 영랑의 옛집을 나섰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 강진 땅에 유배된 다산이 맨 처음 머물렀던 사의재.
▼ 백련사 경내에 흐드러지게 핀 동백꽃.

여행 정보

코스 정보

▶ **1코스(사색과 명상의 다산 오솔길)** | 총길이 15킬로미터, 5시간 소요. 다산수련원→다산초당→백련사→철새 도래지→덕남리 제방길→남포마을→목리마을→강진 오일장→사의재→영랑 생가

▶ **2코스(시인의 마을 길)** | 총길이 13.4킬로미터, 4시간 30분 소요. 영랑생가→보은산방(고성사)→솔치→금당마을(백련지)→성전 달마지마을

▶ **3코스(그리움 짙은 녹색향기 길)** | 총길이 16.6킬로미터, 5시간 30분 소요. 성전 달마지마을→무위사→안운마을(백운동)→강진다원→월남사지→월남마을→누릿재→영암 천황사

▶ **4코스(월출산 기 충전 길)** | 총길이 16.5킬로미터, 5시간 소요. 천황사→월출산 기찬묏길→기건강센터→월출산 기찬랜드→도선암지→왕인박사 유적지→구림마을→영암 도자기박물관

※ 문의 전화 | 다산수련원(061-430-3786), 강진군청 관광개발팀(061-430-3224), 영암군청 문화관광과(061-470-2253)

숙박

1코스의 출발지인 다산수련원(061-430-3786)은 단체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도 이용하기 좋은 숙박시설과 식당을 갖췄다. 강진읍내에는 가필드모텔(061-433-1212), 보금모텔(061-433-4765), 프린스관광모텔(061-433-7300), 벨라지오모텔(061-433-0570) 등 모텔이 많다. 다산초당 아래의 다향소축(061-432-0360), 다산명가(061-433-5555) 등에서 민박이 가능하다.

맛집

강진읍내에는 청자골종가집(061-433-1100), 흥진식당(061-434-3031), 해태식당(061-434-2486), 명동식당(061-434-2147) 등과 같이 전남도에 의해 남도음식 명가나 남도 별미집으로 지정된 한정식집이 많다. 그 밖에도 강진읍내의 화경식당(백반 · 061-434-5323), 강진읍 외곽의 목리교 부근에 위치한 목리장어센타(장어구이정식 · 061-432-9292) 등도 괜찮은 맛집이다.

가는 길

▶ **승용차** |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나들목(1번 국도)→석현삼거리(좌회전 · 2번 국도)→영산강 하굿둑→남포교차로(우회전 · 18번 국도)→호산삼거리(좌회전 · 다산초당 방면)→다산수련원

▶ **대중교통** |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 강진행 고속버스가 07:30~17:30 사이에 하루 6회 출발한다. 강진 버스여객터미널(061-434-2053)에서 다산수련원과 다산초당 입구를 지나는 군내버스는 하루 8회 운행. 택시비는 1만~1만1천원 선.

신달자 시인이 추천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평범한 오늘이 가장 행복한 하루입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 바빴다. 어제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웠다. 바쁘게 사는 것만이 인생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를 만나고선 인생이 달라졌다.’

매주 화요일 모리 교수를 만난 제자 미치 앨봄의 고백이다. 신달자(66) 시인은 이들의 소중한 만남이 담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을 추천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살갑게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인적 드문 강의실 앞에서 신달자 시인을 만났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손에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 쥐어져 있었다. 신 시인과 이 책의 인연은 1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건 우리나라에 막 초판을 찍으려고 할 때였어요. 출판사에서 ‘좋은 원고가 하나 있는데 추천사를 써 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거든요. 원고를 읽어내려 가면서 ‘아, 이런 좋은 책이 있다니…’란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이 책을 만난 1998년은 신 시인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을 때였다. 1964년 시 ‘환상의 밤’으로 등단해 수필집 〈백치애인〉(1988), 소설 〈물 위를 걷는 여자〉(1993) 등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지만, 오랫동안 몸이 아픈 남편을 간호하느라 심신이 지쳐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한다.

“남편 곁에서 이 책을 읽었어요. 그렇게 함께 읽으면서 죽음이란 것을 하나의 과정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됐죠. 스무 살이 지나면 스물한 살이 되는 것처럼,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책은 루게릭병으로 죽음을 앞둔 모리 교수와 유명 스포츠 칼럼니스트인 제자 미치가 16년 만에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매주 화요일마다 ‘죽음’ ‘결혼’ 등의 키워드로 인생 수업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죽음을 앞둔 모리 교수의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죽음을 앞뒀기 때문에 삶의 소소한 것들도 소중히 여기면서 보통사람들과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깨닫게 해줘요.”

신달자 시인은 “행복은 잔잔한 일상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실에 불평하기보단 제대로 인식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철 기자

지극히 평범한 것에서 찾는 소소하지만 큰 생의 의미

신 시인은 한 귀퉁이가 접혀 있는 페이지를 펼쳤다. 그가 손으로 짚은 곳은 ‘모리 교수의 소원’ 부분. 병상에 누운 모리 교수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았다. 단지 24시간만 주어진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스위트롤 빵과 차로 멋진 아침 식사를 하고, 수영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가 바란 것은 누구든 할 수 있는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었다.

“행복은 대단한 것을 소유해야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잔잔한 일상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현실을 불평하기보다 제대로 인식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길 아니겠어요?”

그는 “모리 교수도 훌륭하지만 제자 미치의 태도에서도 본받을 점이 많다”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미치처럼 깊이 새겨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요즘, 바쁜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201번째 기회

글과 그림 · 최영순

세계 최초로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너스 솔크 이야기입니다.
그는 백신 제조법을 무료로 공개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백신의 특허권을 신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태양을 특허로 신청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Culture

〈난타〉〈점프〉… 이번엔 〈비트〉다

넌버벌 퍼포먼스 〈비트〉

일시 3월 26일~4월 4일 평일 오후 8시, 토·일요일 오후 3시·7시
(월요일 및 4월 4일 오후 7시 공연 없음)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관람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23-0985 www.sac.or.kr

〈비트〉는 교통사고로 죽은 로커들의 차를 분해하려는 폐차장 근로자들과 이를 방해하는 로커 유령들이 폐차장에서 벌이는 소동을 코믹하게 그린 비언어극(Non-Verbal Performance) 공연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은 비언어극 〈난타〉와 〈점프〉를 연출한 최철기 감독의 신작. 한국적 소재의 음악극과 무용극을 주로 제작해온 서울예술단이 노하우를 보태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이번 공연은 폐차장을 배경으로 록스타와 폐차장 인부들이 빚어내는 에피소드에 록과 한국 전통 타악을 결합해 다른 비언어극보다 음악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배우들은 드럼, 기타, 베이스, 건반의 4인조 밴드로 등장해 노래와 연주를 직접 선보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국내 공연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한 악기 연주가 눈에 띈다. 차축은 음계, 연료통은 북, 파워펌프는 실로폰 등으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자동차 1백29대가 분해됐다.

여기에 파워풀한 안무와 독특하고 코믹한 마임, 인형·마스크를 이용한 극적 판타지가 가미된다. 빅뱅, 비 등의 콘서트를 진행해온 무대 디자이너 유재헌 씨와 드라마 〈아이리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등의 음악을 만든 작곡가 이동준 씨도 함께한다.

최철기 감독은 “그간의 노하우와 열정은 물론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번 작품에 모두 쏟아부었다”며 “〈비트〉는 코미디와 타악, 서커스적인 요소 등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 〈난타〉나 〈점프〉 못지않게 롱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예술단 박원묵 예술감독은 “이 작품을 내년에 영국 에든버러페스티벌 등 해외에 선보여 글로벌 문화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김지영 기자

발레 〈바람의 화원〉

일시 3월 28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으뜸석 7만원, 딸림석 5만원, 버금석 3만원, 버금딸림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80-4114 www.ntok.go.kr

조선 후기 천재화가 김홍도와 신윤복의 삶과 예술세계를 다룬 이정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기발한 상상력, 우리 전통문화의 예술적 아름다움을 더해 클래식 발레와는 또 다른 재미를 자아낸다. 한국적인 전통미가 물씬 풍기는 무대와 의상도 놓치기 아까운 볼거리. 공연 연출은 물론 대본, 음악편집까지 LEE발레단 이상만 예술감독이 직접 맡는다. 이 감독은 공연 30분 전 로비에서 발레조각상 전시회도 연다.

오전의 국악콘서트 〈다담(茶談)〉

일시 3월 30일 오전 11시
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관람료 전석 1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2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80-3300 www.gugak.go.kr

국립국악원이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가진 3050세대 주부를 대상으로 여는,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 가수 유열이 다담지기(사회)를 맡은 이번 콘서트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난타〉 기획사인 PMC 대표 송승환과 함께하는 오붓한 만남, 가곡 예능보유자인 조순자 명인에게 배우는 전통가곡, 여성 국악그룹 ‘미지(MIJI)’의 연주 순으로 진행된다. 〈다담〉은 올해 3~6월, 9~11월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미소 코리아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미소가 찾아왔습니다
서민 곁에도 아름다운 미소가 찾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 지금 미소금융에서 만나보세요

NAVER 미소금융 ™

희망을 빌려주는 아름다운 소액대출

미소금융 프로젝트

신용도가 낮아도 자활의지가 있으면 희망을 빌려드리는
미소금융으로 이제 더 많이 웃으세요

신청자격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계층에 해당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smilemicrobank.or.kr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창업임차 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 **미소금융이란?** 서민층의 자활을 돕는 무담보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의 일환으로 전국 미소금융지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저신용·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민금융 프로젝트입니다

종 합 안 내 센 터
1600-3500

아름다운 도전 … 밴쿠버의 진정한 영웅들

2010 밴쿠버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이 연일 감동을 전하고 있다.
몇 번이나 넘어지고 주저앉고 휠체어가 뒤집혀도 꿋꿋하게 일어섰다. 아이스슬레지하키, 알파인스키 등 5개 종목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은 세계의 높은 벽에 맞서 불굴의 투지를 발휘하고 있다. 특히 휠체어컬링 대표팀(사진)은 이 종목 강국들을 연파하며 정상급 실력을 보여줬다.